朝鮮日報 夕刊
本號特刊並十二面
編輯人 發行人 方應謨
發行所 京城府太平通一丁目 株式會社朝鮮日報社

希臘政府首腦部 精銳部隊에 動員令

陸相은 將軍自身이 戰線指揮

叛軍來襲阻止에 苦心

【電通아덴스三日發】希臘政府는 叛軍을鎭壓하기爲하야 希臘軍의 最精銳部隊인 一九三二年及一九三三年度新兵部隊에 動員을내렷다

【아덴스三日發聯合】陸相콘도리스將軍은 叛軍의來襲阻止를爲하야 마게도니아方面에出張하야 軍의指揮에當하게되엿다

【아덴스三日發聯合】크리드島를占領한叛軍의 勢力은依然强大하야 希臘政府는 三日閣議의結果攻防兩軍의總動員令을決行하엿다

軍法會議四日開延

【電通아덴스三日發】希臘政府는 軍法會議를 四日午前十時부터開延하기로 決定한旨를 發表하엿다 그리고 크레포로總督은 先同島東部의安全個所에避難하고 잇는데 곳까지 叛徒의鎭壓에當할部隊의糾合에努力中이라고

元內相베티氏 反政府宣言發表

【아덴스三日發聯合】叛亂勃發과 同時에 멘지오스前陸相은 元內相엘내우레리오스、부다즈빗즈氏와 行動하엿다 今年七十二歲의 부다즈빗즈氏는 一九三三年現保守黨內閣의 政權把握以來閑地에 잇섯는데 島에 老軀를養하고잇섯는데 氏는政府反對의 [illegible]計劃中이다

叛軍크島에上陸

【아덴스三日發聯合】사라미스戰에敗한叛軍은 三日드되어 크리드島에 上陸하엿는데 島民의一部가이에合流하야 크리드總督아포치나스氏를逮捕하고다시軍信局無電局을占領하엿다 希臘政府는事態의 重大化에鑑하야 一九三三年의 海軍兵에動員令을내렷는바다시陸軍에對해서도動員計劃中이다

『歸順치안흐면 海賊으로認定』

叛軍에對한政府의威嚇的警告

叛徒軍艦行衛不明

마케도니아方面 政府軍完全勝利

살로니카에서反對派將校被逮

『크』島는叛軍掌中에

【아덴스三日發聯合】프라스치라스將軍을擁하는 베니제로스派共和黨으로된 現政府反對派와共同戰線을친 一黨들은 사라미스의一戰에敗한以來 急速히 崩壞하고잇스나 軍艦五隻에 分乘하야公海로떠나간一派는 海賊視、捲土重來의意氣를示하고잇서政府側은叛徒擊滅에 熱中하야 脫走艦의徒黨들을 百方으로探査하고잇는데 叛徒의手中에잇는 巡洋艦아프로엔號는 希臘第一의巡洋艦이오 他三隻도 다相當히 有力한軍艦이므로 政府側은 [illegible]擊할만한 軍艦도업서 부질업시 拱手傍觀하고잇다 政府는 目下 直時洋上의 軍艦에게 對하야 無電으로써 速히歸順하지안흐면 海賊으로 看做하겟다는 警告를發하고 크리트島提督도 叛徒의 歸順을促하는 無電을發하야 크리트島에서 砲擊하겟다고威嚇的訓電을하엿다 살로니카港에서도 萬一의 境遇에 叛徒의入港을防止하기爲하야 大砲를設備하고防衛에 努力하고잇는데어째든 現在에 잇서서는 叛徒艦隊의行方이 判明하지아니하여서 目下事態는五里霧中으로 流言蜚語가到處에橫行하고잇다 一部의報道에依하면 巡洋艦아프로엔號는 政府空軍의砲擊을바더沈沒하엿다는說도잇스나이것은 다만流言에不過하다는觀測이잇다

【電通아덴스三日發】希臘政府는 마케도니아 西트라케地方의革命運動은 政府의손으로完全히制壓하엿다는 旨를發表하엿다

【電通아덴스三日發】마케도니아地方의革命運動의 戰幕은 도마라、카와라兩市에서 開幕되엿는데政府軍이 出動하야이에彈壓을加하엿다

【아덴스三日發聯合】叛亂의重大化에臨하기爲하야 希臘政府는三[illegible]

叛亂은不擴大

外務當局의觀測

【電通東京電話】希臘의叛亂事件에關해서는 三日正午까지에는 外務省에는 何等公電이업스나 外務當局에서는 現在까지의情勢로는 事態는擴大되지안코 近近鎭壓하게될것이라고 觀測하고잇다 今回의叛亂은 現政權(保守派)에不滿을抱한 軍人들의流刑中의 프라스치라스將軍을擁하고 叛亂을起한것갓다 同將軍은 新希臘地方及農村地方에勢力이잇는共和黨의巨頭인데 萬若共和黨이同將軍을 支持하고일어서면 大事에至할지도 모르나 現在와가티 叛軍이逃亡하고잇는情勢로본다면 擴大하지안흘것이다 또元來同國은 國際的으로中立的色彩가 濃厚한바이므로 國際的紛糾를 이르킬影響은업슬것이다

久邇邦久侯薨去

【東京電話聯合】皇后陛下의御兄이되시는 久邇邦久侯는腦溢血로四日午前零時半澁谷區若木町私邸에서 急逝하엿다 享年三十四

皇后陛下御服喪

【電通東京電話】皇后陛下께옵서는 久邇侯爵이薨去하섯기때문에 四日부터二十日間을 第一期喪、그다음七十日間을第二期喪으로하야 前後九十日御服喪하시옵게되므로 따라서來六日第三十二回御誕生日의地久節의拜賀와 御內宴은모다 御中止하시옵게되엿다 그러고皇太子殿下、三內親王殿下久邇大妃殿下께옵서는 三十日間各各御服喪하옵시리라이다

話題解說

暹羅王御退位

暹羅首都 盤谷二日發에 現在 滯英中의 國王 프라차데이포쿠陛下와 正式御退位를 傳하더니 三日外電에依하면 皇姪아난다陛下께서 御卽位하섯다한다

◇

暹羅國은 東洋獨立國의하나로서 印度支那半島中央部의 大部分을占하고잇다 [illegible] 一小國으로 人種的으로나 文物上으로 中國과 密接한關係가잇다 그러나 東으로 佛領印度가잇고 西에 英領印度가잇는關係上 政治的으로는 英佛의壓迫이 甚하야 嚴正한意味의 完全獨立國으로보기는 어려운 形便에잇다

◇

現在 暹羅는 中國 雲南北[illegible] 朝時代에 扶南으로 알려진 歷史긴 小國으로 그王統에 [illegible] 變이 만헛다 現王家의 始祖 [illegible] 一七八[illegible] 六年[illegible] 王座에 卽位하엿는데 現國王프라차데이포쿠陛下는 第七代王에 該當한다

◇

暹羅는 從來 專制的君主國家이엿스나 最近 全世界를 風靡하는 데모크라시思想은 暹羅國民에게도 크게普及되야 國王의 專制政治에 漸次 不滿을갓게되엿다 그리하야 一九三二年六月二十四日의 無血的革命에依하야 暹羅王은 專制君主制가 廢止되고 立憲君主制가 確立되엿다 그結果 國[illegible] 스나 革命分子의活動은 [illegible] 되야 現國王프라차데이포쿠陛下에對한 壓迫은 依然히 조치 못하엿다 프라차데이포쿠陛下는 御眼疾治療의 名目下에 一九三四年正月十二日御渡英하엿스나 그裡面에는 陛下對國會間의여러가지 複雜한關係가 잇섯던것을 看過할수업는바이다

◇

이러한意味에서 이番傳하는 프라차데이포쿠陛下의 御退位消息은 決코 偶然한일은 아니라할것이다

革命軍掃蕩의 峻嚴한政府命令

[illegible] 베니제로스派[illegible] 이內爭에依하야 國軍의武力을減[illegible] 如何[illegible] 憂慮하여마지안는다

一方크리드島東部의 陸上에서도 革命軍과 政府軍과의사이에衝突이 頻發하야 時時銃聲이들리는데 島民中에는 政府軍에逃避하는 者續出하고잇고 革命軍도作戰을 꾸미고잇스나 아직決戰에이르지는아니하고 서로觀望하고잇서勝負의數는 아직判斷키難하다 그리고 三日의戰鬪의中心地인크리드島에잇는 希臘本土더욱마케도니아方面의形勢는 자못不穩하야 今後을通하야 政府의立場은容易히樂觀을 不許하는바잇서서 首都의空氣도 亦是相當히緊張하고잇다

【아덴스三日發聯合】크리드島의 革命軍은 政府軍의손으로秩序는維持되고잇다 政府는 三月夜半에布告를發하야 叛亂鎭壓에 全力을다하고 國民의生命財產의 保護를期한다는 旨를宣言하엿다 右布告에는如左하다 크리드島에避難하고잇는自由主義同志는 徒黨을使嗾하야叛亂을이르켜서 加네아와레티므南港을占領하고 所屬艦艇을動員하야希臘本國을侵略하고 叛亂을이르키려고하고잇다 그러나希臘政府는 모든手段으로써 叛軍을 鎭定할 것이다 하고 治安을 回復할決心이다 叛軍의 鎭定에 當해서는 政府는 어대까지 假借하지안흘것이다 政府는 海軍後備軍을動員하야 海軍의 强化를圖하기로決하엿다 現政府는 國民與論의支持를確信하고곳 秩序를 回復하야 國民의自由와權利를擁護할것이다

【아덴스三日發聯合】크리드島의 無電臺와 電信局이叛軍의掌中에 歸한結果同島의情勢는 全혀判明되지안는다 二日까지首都잔되야는 依然政府軍에 屬하고잇섯는데 그後叛軍에게占據되엿을것으로 觀測된다

自由黨內部에 意見二派로分立

【電通아덴스三日發】希臘革命運動의指導者라고 指目되는元首相베니제로스氏의行動에 對하야는 氏의地盤인 自由黨內部에서도意見이二派에分하야 베니제로스支持派보담도 今回의革命의 成功을疑問視하는 者가만코 後者는

暹羅國王에 아殿下御登極

【盤谷三日發聯合】暹羅國王프라차데이포쿠陛下가 御退位의意思를表明한데對하야政府當局은 極力 慰留하엿스나 도모지 御決意가 堅固하야 드되어 나國王의辭意는聽容하야 同國王은 御退位公式手續만을남기게되엿는데 그後繼는數月後라고보이고 御甥宜普라司[illegible] 마히돌殿下가 登極하시게될것으로 同殿下는 一九二五年九月誕生으로二年前부터 瑞西에 留學中이시다

對中經濟援助에 英米佛加入을希望

日本의單獨的冒險을積極으로는反對치안는다

英政府의大體的意向

【倫敦二日發聯合】一日華盛頓에서國務次官필립스氏와 駐米英國大使린제氏와의사이에 協議된 對中經濟共同援助對策에關하야 當地財界消息通의意向을 綜合하면 如左하다

一、英國은 日本이中國에對하야 財政的援助를 與하는것을妨害할意向은 가지지아니하다 勿論 日本이單獨으로 對中援助의冒險을試하려면 그것도조흔일이다

一、그러나英國은 對中財政援助에는亦是日本外에 적어도英米佛의三國을 加할것을希望하는바이다 各國共同으로 具體案을講究하는것이 得策이아닐가생각한다

日中親善工作

日本記者團도渡中

中國記者團招待

【電通東京電話】第六十七議會에 廣田外相의外交方針演說에서 不脅威不侵略의原則을宣明한以來日中關係는加速度的으로親善의度를加하고잇는데中國側의一部에서는 아직日本의對中政策의眞意에 疑惑을抱하고잇는者도잇고도對日認識에서缺하는바잇스므로 外務省에서는 日中關係好轉의機運에乘하야 다시中國有力新聞記者를日本에招待하고 日本政治經濟의實情을觀察시키는同時에各方面과도 隔意업는意見交換을시켜서 日中間의意思의疏通을圖하려는計劃을進行하고잇다 一行訪日時에는 東京大阪을爲始하야 各地의工業日本의實情을 兼하야政治、經濟、敎育、文化等各面에 通하야 自由立場에서 充分觀察하고 日本文化에 對한認識을새롭게하는同時에 岡田首相廣田外相、林陸相、大角海相等을 爲始하야朝野의 有力者와會見하야 日本의對中政策의 眞意를 諒解시킬豫定이다 그리고中國記者團과交驩的으로 日本記者團도渡中시킬用意가 잇스므로右計劃의 實現은日中親善을 一層促進하는것이라고 注目되고잇다

九國條約精神下 對中財政援助考慮

日中提携를防害함은아니라고

英國政府의釋明要旨

【倫敦三日發聯合】日中兩國間에親善合作의機運이 擡頭하는同時에英國政府는 華盛頓駐箚大使린제氏를通하야中國에 對한國際的財政援助를提案 米國政府의意向을打診하는擧에出하엿는데 同大使는필립스國務長官代理와의會談이 後大反響을喚起하자 今回의提言은全혀中國의 財政緩和를講究하는以外他意가업는것을 釋明하기에努力하고잇다 但右釋明에徵하더라도英國政府가九國條約의精神에基하야中國에對한國際的財政援助를考慮提言한것은明白한事實이다 右提言이 日中兩國의「經濟提携」에對한牽制的策動인것은否認키難하고 今回의提言에對한英國政府의非公式說明을要約하면如左하다 英國大使린제氏와 國務省과의사이에 華盛頓에서行한會談의內容은 中國에對한財政援助의具體的提案으로

一、國民政府는이미通貨上의難局을打開를爲하야英國政府其他諸國과의사이에協議를要求하고이미上海에서中國銀行公會와外國銀行과의사이에 外國과의借款案의大綱이作成되엿다 그러나이미提示된借款案이 果然受諾될는지 그可能性에 關한것인데 要컨대 刻下財政上의難局에直面하고잇는中國에對하야 如何한援助를與할수잇슬는지、이에對하야 國務省의意向을徵함에不過하다 英國政府는其他의 諸國政府와함께中國에對한 財政的援助를 樹立하는것이 妥當하다고 생각한다 右英國政府의見解는 四國借款團加盟國인日米佛三國政府에게 對하야이미通告하엿다

一、今回의 財政援助提案은右四個國借款協定과는 無關係로四國借款을通하야 右財政援助를 日中兩國間의 直接財政交涉에 代位할것을 目하는것은아니다 右直接交涉에對해서는 아직英國政府는全然關知하는바아니나 오도中國에對한國際的援助案을企圖할境遇에는 日本政府의 參加를 當然希望하는것이다

一、華盛頓會議에서는 九國條約의 精神에基하야 考慮되고잇는것은事實이다 그러나 中國의 財政難이 目下同條約의 精神에 基하야 考慮되고잇는것은事實이다

又復伊太利政府 輸入統制案發表

求償主義에基한互惠通商을企圖

統制機關도新設乎

【羅馬二日發聯合】伊太利政府의 輸入品一千五百品中에亘하는 特許制는드되어 三月三十日부터實施하게되엿는데 二日에다시政府는命令을發表하야 嚴重한輸入統制具體案을決定하엿다 新政府命令에依한 輸入統制는如左하다

一、中央政府는 輸入統制를管掌할一機關을設置함

一、輸入品은 各國別의輸入配定超過分에對해서는 嚴重한統制를行함

一、各國과의 通商交涉을開始하고求償主義에基한 互惠通商貿易의實施를圖함

一、各國別輸入配定은 그나라에對하야 伊太利品의 輸出價格에準하야 個別的으로 收支의均衡을圖함

英政府・香港을 永久的軍事根據地로決定!

注目되는英國行動

웨슈、터-너-兩大佐香港着

【上海發】英國의極東政策은日中關係의打開로因하야 極度로刺戟되는모양으로 上海에到着한情報에依하면 英國은香港의從來의航空設備에다 다시根本的工作을加하야 香港을 極東의航空中心地로 하기로決定하엿다 英國航空部에서派遣되어웨슈、터-너-兩大佐는右使命을帶하고 二日에이미香港到着、近近香港에軍要會議가열릴豫定이다 英國의極東에對한航空政策은 新架坡에서香港을經하야廣東에連結하는一線을目標로하고잇고 目下中國航空會社와汎米航空會社와의連繫로 米國側과南中一帶를中心으로猛烈한競爭을하고잇는現狀으로 英國이香港에서大規模의軍事工作을 完成하는것은 右事情에서 보더라도有利한地步를엇게되는것이오 또香港의英國勢力增大와同時에華盛頓軍縮條約廢棄에伴하는 大平洋防備制限의廢棄를豫期한것으로 東洋平和에一大脅威가될것이다

北鐵讓渡協定에 三月下旬正式調印

【東京電話聯合】北鐵讓渡協定文은近者에드되어 案文大綱의調整을終한 模樣으로다시文句其他에對하야詳細히檢討해서 느저라도 三月下旬頃에는 日滿蘇三國代表의正式調印을完了할豫定이다 그리고 右協定文書은

一、蘇滿兩國間에締結될讓渡基本協定文

一、讓渡代金支拂保障에關한日蘇交換公文

一、支拂物品價格裁定에關한日蘇滿三國間의協定書의三部로된모양으로 其中特히 注目된것인데 後段의二項에關해서는近近廣田外相으로부터樞密院에御諮詢의手續을取하기로되엿다

八面鋒

◇朝鮮米의 移出은 먹고남어서가아니라 飢餓移出이라고 兒玉拓相의議會答辯。

◇그런줄이나 아는것도 朝鮮政務總監의 지난번答辯分、그러면서도 自治管理는 무슨緣分。

◇要行者가생기면 不法黨束法으로、怪文書가 나올면 不法出版物取締法으로。

◇特殊現狀이 나타날때마다 가지가지 特別法을 만드는 政府의立法技術이야말로可驚。

◇日中經濟提携와 外交工作을보고、英米가 여기도 한다리집어넣자는 모양。

◇請치도안는빗을 自擔하야주겟다고덤비는理由에는 무슨생각이잇슬꼬。

奉天見聞記 ⑦

廣袤五百町步의 人造隆業山昭陵

徐椿

北陵에 到達햇다。北陵은 元來、隆業山昭陵이라고하는것인데、亦是、奉天城으로부터 東으로、約二千里를 가서 잇는淸太祖의 御陵을 東陵이라는데、對하야 이 陵을 北陵이라고한다。隆業山의 三字가 붙은것은 이陵을 모신데가 卽隆業山이기때문이다。奉天一帶에 山이업다는 말은 이미 紹介한바이니와、隆業山은 昭陵을 모시기爲하야 人工으로 만든 造山이다。이곳에서 흙을 파다가 山비슷하게 맨든것인데、記錄에 依하면 이山은 南北約五里、東西約一里餘로서 全面積은 日本面積單位로 말하야 五百七十餘町步라고한다。

昭陵은 淸朝、第二代의 皇帝이신 太宗文皇帝를 모신 이다。造山에 植林을 盛히 하야古松이 鬱蒼하얏슬만 아니라、이만하면 이미 想像할수잇슬것과가티 規模가 壯麗한데、陵의竣工은 只今으로부터 約二百八十年前인 淸朝順治十三年에 되엿다고한다。

昭陵을 參觀하는데는 隆業山入口부터 北을 向하야한 서너 마장 드러가서、昭陵의入口이면서、同時에陵을 擁圍한 紅城의 前門인 第一山門으로부터 드러가게 되여잇다。

이 第一山門으로부터 北으로 向하야 정말 陵을 모신데까지 드러가노라면 二層樓門으로 된第一山門다음에 單層樓門으로 된第二山門이 잇고 그다음에 隆恩門之前庭이 잇다。前庭이라는 말이 부럿스나 事實은 뜰이 아니라 亦是、二層으로된 樓門이다。이 隆恩門之前庭을 지나서 若干、드러가노라면 三層樓門으로서 諸門中에 第一 堂堂하게된 隆恩門이라는것이 잇다。隆恩門을 지나서 한참 드러가면 거기는 昭陵에 딸린 諸建物中에 主人公格이 된 單層樓屋으로된 隆恩殿이 잇고、이 隆恩殿뒤에는 얼마아니가서바로 二層으로 된明樓가잇다。明樓뒤로부터 陵까지를 수部로 데、이 무덤이 정말로 淸朝太宗文皇帝와 同皇后와의 兩位를 모신데다。

新聞말한바와 가치 第一山門으로부터 陵까지를 수部로 고 하고、다음 紅城안에 다 시 方城이라는것이 잇는데、이方城은 말하면 隆恩殿을 [illegible] 誇할 精神으로 사은것인데、殿南에 잇는 隆恩門과 殿北에 잇는 明樓를 貫通한 두 城壁을 二邊으로 한 正方形으로 되여 잇다。紅城을 外城이라고하면 方城은 內城格으로 되여 잇는데、方城은 紅城보다 훨신 놉다。記錄에 잇는것을 보면 紅城의 놉히는 三丈이나 되다고한다。方城에는 四隅에 亦是二層樓門이 잇고、또한 隆恩門으로부터 隆恩殿에 至하는 左右에는 方城內로 부른 좀그 楔의 附屬建物이 잇다。

第一山門 압해서 參觀票를 파는데、參觀料는 三十錢이다。票를 사가지고 山門入口에 到達하면 거기는 滿洲國의 守衛隊 約八九名이 잇서 門을 守衛하고잇다。票를주고 第一山門으로부터 第二山門을 向하야 드러가노라면 御道의 左右兩側에、豹、獅子、麒麟、駱駝、馬、象等의 石獸가 잇다。石獸란 돌로 만든 즘생이란 말이다。그中、石馬는 太宗이 타시든 말을 그대로 본떠서 만든것이라고한다。

다음 隆恩門의 前庭을 거처서 隆恩門에 到達하야 三層樓屋을 올녀다보면 隆恩門 三字를 쓴 立額이 놉히 부텃다。漢文三字의 外에 꼭 갓흔 二行의 모를 글이 잇는데、同行의 說明에 依하면 한줄은 滿洲文이오、또 한줄은 蒙古文이라고한다。

只今에 와서는 도모지 姓名이 어더고할만한 滿洲文、蒙古文도 只今부터 三百年前의 東洋에 잇서서는 漢文보다 은저 씨울 價値가잇섯는가 하는생각을 하면 이 亦是、過客에 對해서는 一種感慨를 주는것이엿다。(續)

京城工業專修學校 生徒募集
第一學年 約百二十名 出願 三月二十七日까지 試驗 三月廿八、廿九日

正義女子高等普通學校 生徒募集
入員 第一學年百名 出願期日 三月二十日限 考査 三月廿五、廿六、廿七日

五山高等普通學校 生徒募集
第一學年約百名 出願期日 三月十七日限 試驗期日 三月十八、十九日

京城齒科醫專 生徒募集
募集人員 百二十人 出願期日 三月三十一日限 試驗期日 四月一日、二日、三日試驗場 京城、東京、福岡 卒業後無試驗開業ノ特典アリ

土金 石金 高價買入 京城府瑞麟町三十番地ノ一 京城福力 電話光化門 一二八七番
附屬鑛務所 測量、製圖、鑛物分析及鑑定、鑛山賣買並鑛山經營資金融通(最新型伸圖機使用)

돈버리 五合米의가入升에 カタログ呈 大阪市北區

農林省獎勵 副業 最良 地方 軍手製造家를募集함 大阪市北區天滿橋筋一丁目 合資會社 豊國軍手製造所

外科 肛門病科 入院室全部獨房 스팀設備 醫學博士 朴昌薰

二圓밧는금비녀 순금비녀와 꼭가사오며 재료의 선택과 공의 정밀이 四원은 밧어야 될것이나 당분가특가二원에 판매합니다 各種지방、반지、귀개、말뚝잠、십자외반지 三信金銀部 京城府西大門外

恩給 郵商會

ユアサ 電池 國產優良 京城府黃金町一ノ二〇六 代理店 城東電池商會

工業傳授及原料案內 泰昌工業所 京城府長沙洞

優美館 微笑む友情 海軍士官候補生 生活の斷片

桃花劇場 深夜부터새벽까지 怪盜少年團 아리쏘나

大正館 怪盜流轉 ロッキーの彼方

今日 本報創刊十五週年

잔주접을훨훨떨고 朝鮮第一되기까지

기쁜生日에讀者、先輩께感謝

"成人"本報의飛躍萬歲

삼월오일! 이날은 조선일보의생일이다。경신년(庚申年)삼월오일에 본보가 이천만민중의만흔긔대와 서원하에 창간호를내인후로 어언간오늘로써 십오주년을맞게되얏다。돌아보아생각하면 십오년이라는세월이 덧업시빠르기도하고 깐깐하게길기도하엿다。그동안 조선일보는 엇더한자최를밟아왓는가。바감고깃븐오늘날에잇서 독자제씨께지나간십오년을 도리켜보매 실로감개가무량함을 금할수업다。

신문은원래 사회의반영(反映)이라고한다。그때그때의 사회상을 거울과가치 지면에비치는것이 신문의사명인만치 신문의력사는곳사회의 력사가되지아니하면 안될것이다。다시말하면 과거십오년동안에 우리사회가 평온하엿고 명랑하엿다 하면우리신문도 그러하엿슬것이오、사회가그럿치못하엿다하면신문도 그러치못하엿슬것이다。최근 십오년간의 조선은 독자가 이미 잘긔억하는바이라 이제새삼스럽게 들추고자아니하거니와 우리는불행히 평온치못하엿섯고 명랑함을보지못한것이사실이엇다。사회가 그러하엿슴을따라 우리신문의 밟은길도 또한평탄하지못하엿고험난하엿슴은 심히유감스러운일이엇다。더욱이 본보는 일시경영곤난에 빠지서 독자제씨의근심을자아내게하엿고 자체의성장을 념려케한적이 업지아니하엿스니 과연지금생각하여도 아슬아슬한지경을 지낫다고할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지난일을말할필요는업다。이제본보는 현사장방응모(現社長方應謨)씨가 재작년사월에 인계혁신한이후로 오십만원입시불입의주식회사(株式會社)를만들어 경영의긔초가 반석과가티되얏고 방금태평통에 수십만원의경비를드려조선제일의사옥(社屋)을 신축중이오 인재를 망라하고 통신망(通信網)을 확장하야 명실이함께 조선 제일의신문을 만들기에 전력을 다하고잇다。

개인도 십오세면 잔주접을다떨고 혈긔방장한청장긔에 이르는것과가티 우리조선일보도 이제 열다섯살을먹으며 성인(成人)의 의긔(意氣)로써 임대비약을하게되얏다。만천하독자제씨여、우리와함께 조선일보만세를 부르사이다

우리는 이조흔날이 잇슴을 누구보다도 먼저독자제씨에게 감사드리는 동시에 십오년동안 잔주접을떨때까지 이신문을 위하야정신으로물질로 히생하신선배 제씨에게 감사함을금치못하는바이다

寫眞은 本紙創刊號

食糧差押禁止法

一般에도適用케成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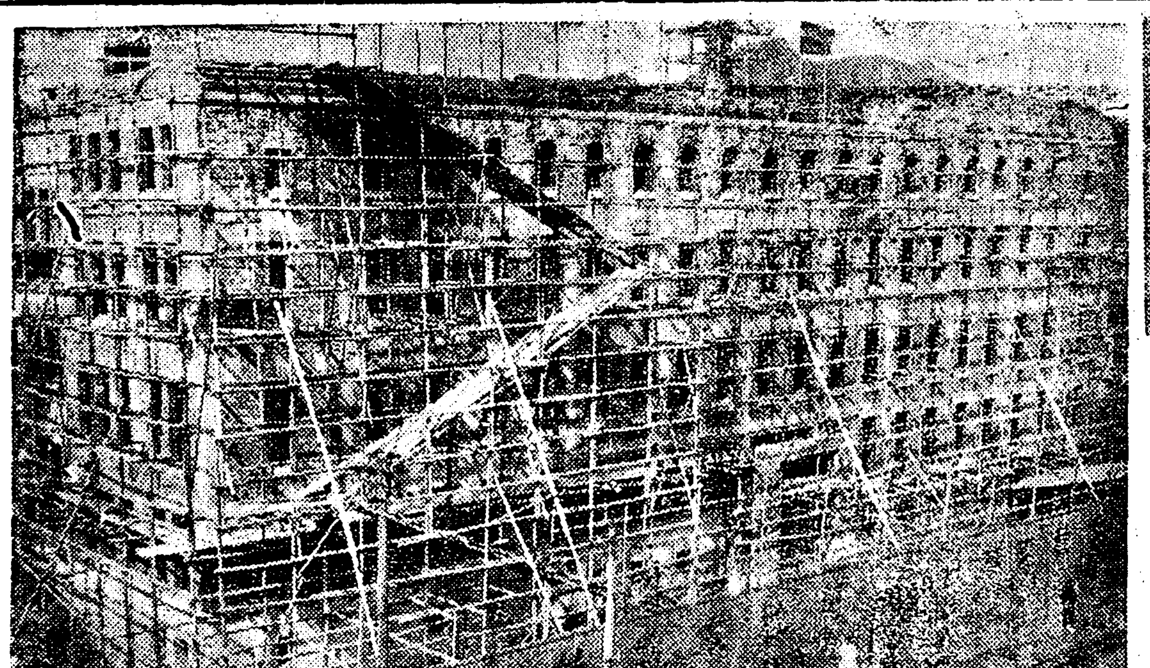
年六百圓俸者俸給도差押禁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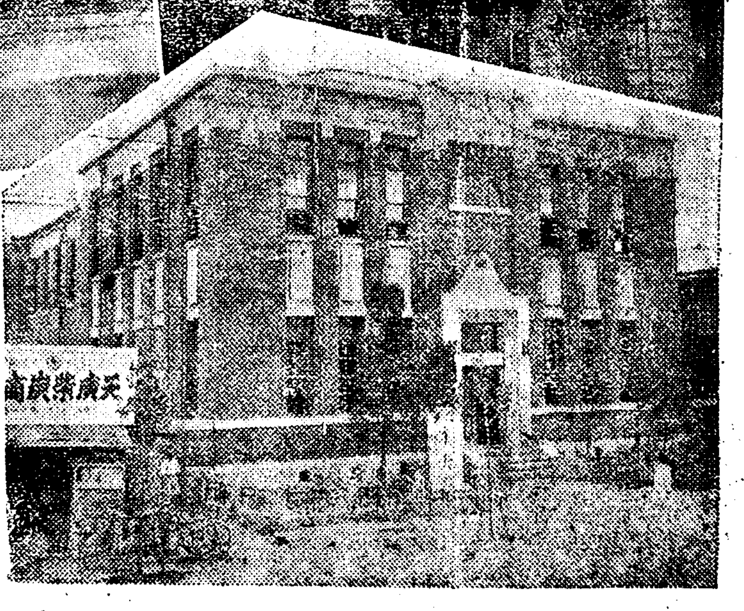
今期議會에提出有望

식량차압 금지법안을 이번의회에 제출한다함은 루보한바와 갓거니와 사법성에서는 이법안의 요성을인정하고 그간대상(大藏) 상공(商工)농림(農林)내무각성과법안의초안에 대하야 구체적결론을듯고잇는바 의회에제출키로 결정된 법안의 구체적골자는 농민의식량에만한하지안코 일반적으로 인민의식량은 삼개월이내의 분을 차압할수업게되고 또 봉급생활자에게는 년륙백원이내 즉월급오십원이하에 대하야도 차압을금지하는것으로 이법안은 현행민사소송법의 부분적개정에 의하야목적을달하게하는것임으로 이번의회에제출통과되면곳조선에도실시를 보게될것이비이 개정법령의실시는 일반중소계급의생활에미치는영향도클뿐아니라이와가른사회(社會)립법이 독립한 법령으로제정되지안코 민사소송법의 개정으로되는것은 금후민사법규나 형사법규의 개정에잇서서 사회립법적 의미의개정이 단행될 전제라하야비상한주목을끌게되리라한다

李鍵公殿下 王子御誕生

【東京電話聯合】 리건공비전하께서는사일아침에 제이왕자를 탄생하시압섯는데모자분이다건강하압시다고한다





—本—社—歷—代—社—屋—

(下)水標町當時社屋(中右)堅志洞時代社屋(下)
(上)蓮建洞時代社屋(中左)新築中의現社屋(上)

本社歷代社長 寫眞頂上으로부터右邊順으로‖南宮薰先生‖故李商在先生‖申錫雨先生‖安在鴻先生‖曺晩植先生‖現社長方應謨先生(中央)

女子中等校에는 外國語를隨意科로

一般中等校는學年縮少와宗教課目新設

中等校學制改革의計畫內容

중등학교의학제(學制)개혁에대하야는문부성(文部省)에서여러가지 개혁안이 협의되고잇다는데 이에 따라 총독부에서도 이에대하야는 문부성의 제안을중심으로연구중 이나대체 일본내지의 개혁안에추수할작정이라한다 그러대 문부성 관내에서는 이미중등학교 개혁의 첫시험으로 농업학교와 녀학교의 외국어과목은수의(隨意)과목으로 하게되야 금년부터 실시하게되곳은 북해도(北海道)와 복강(福岡)현등인데 물론간전국적으로 이것을실시하게되리라한다

조선에서는 농업학교에는 외국어는 본래부터 학교와지방에따라 수의(隨意)과목으로 되어잇서 새로문제될것은 업스나 여자고등보통학교와 고등여학교는 외국어는 필수(必須)과목으로 되어잇다 그럼으로 조선에서도 문부성의개혁방침에의하야 결국각학교의 사정에따라 점차여자중등학교의 외국어는 수의과목으로할것은 이가하여갈방침이라한다 그리고 남자중등학교의 개혁문제는 학년축소와 실제교육주의에의한외국어 과목의축소 종교(宗教)과목의 신설등이 립안되고잇다는데 조선에서방금 조사연구중에잇는것도대개이와갓다한다

金美理士女史 教育事業祝賀會

실수년간 조선녀자교육을 위하야 분투하여온 근화녀자실업학교장 김미리사(槿花女子實業學校長金美理士)씨의 교육사업을 축하하고저 림효정(林孝貞)씨외 마흔여섯명의 발긔로 오일밤일곱시반부터 시내종로중앙긔독교 청년회관 대강당에서 김미리사 교육사업축하회를 성대히거행하리라한다

普專記念事業 巨額寄附遝至

申錫雨氏三千圓筆頭

전조선 유지칠백여명의 발긔로창립삼십주년을 마지하는 보성전문학교(普專)를위하야 긔념사업으로 도서관、대강당、체육관을건설코저 삼십만원긔부금을 모집중이라함은 긔보한것과갓거니와 이번에 다음과가티 만흔긔부가잇섯다한다

金三千圓 京城 申錫雨氏
金二千圓 北靑 方義錫氏
金一千五百圓 京城 金搢東氏
金一千圓 同 朴勝彬氏
金一千圓 高敞 姜大遠氏
金一千圓 同 鄭桂源氏
金一千圓 同 金在鋼氏
金一千圓 同 鄭東煥氏
金一千圓 同 李鍾勳氏
金一千圓 扶安 李永日氏
金一千圓 同 李承鎬氏
金一千圓 同 鄭祚永氏

中東校兩組盟休

시내수송동(壽松洞)중동학교(中東學校)사년급과 삼년갑조생도들은 사일아츰첫시간에 근일사표를제출한 그학교교무주임 안일영(安一英)씨의 류임등 여러가지 조건을 학교당국에제출하고 회답을요구하여섯는데 그중사년급 일조와삼년갑조는 수업을 밧지안코 동맹휴학을 시작하엿다고 한다

運動競技

京仁驛傳詳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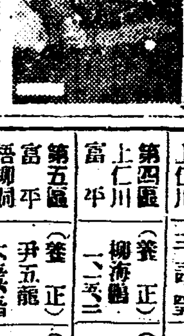
京城……仁川間往復五十哩餘를달리며 熱狂과興奮을기우렷、高調시킨第三回京仁驛傳競走는 三日午後十二時三四分에 歸還點인上仁川驛前에는往十里軍이 斷然先頭를달리드니傳統을자랑하는全養正高普탐의第四區走者柳海鶴君의奮鬪로 先頭를빼아서 元氣倍加한養正軍의第六區走者孫基禎君이同午後二時五八分一九秒의記錄을 깨트리는 萬雷가른拍手와 感激의鼓動속에決勝點에드러왓다 뒤니어六分後 往路에不振하든 平壤이 安百貨店탐이 彗星과가튼出現을 보이며 龍光、往十里兩탐을물리숨에제치고 第四區(池永龍)와第五區(李正根)에斷然新記錄으로二着하엿다 그리고 龍光、往十里、阿峴白馬俱A탐、第二高普、開城勝聯、京城師範、阿峴白馬A탐의順으로決勝點에드러와스며이날第二高普少年選手들의 悲壯한追跡戰은沿道觀衆들의 無限한賞讚을바덧다 이리하야雌伏二年의養正軍이昨年의惜敗를 보기조케雪辱하야 覇權을獲得하엿다 다음의成績表는 當日各區의接戰을엿볼수잇다 (寫眞은養正軍)

◇各區個人入賞者

▲第一區=1安鎭三(往十里)一時間九分四秒(初記錄)
▲第二區=1金丙天(往十里)四四分二秒
▲第三區=1趙世元(養正)四一分〇一秒(新記錄)
▲第四區=1池永龍(平壤)三七分五四秒(新記錄)
▲第五區=1李正根(平壤)三八分四三秒(新記錄)
▲第六區=1孫基禎(養正)一時間二分二五秒(初記錄)

比島遠征의 朴君全勝

極東選手權獲得 宿敵기브고를擊退



【電通마닐라三日發】 比律賓遠征中의 日本아마듀어拳鬪代表軍의 最終戰인『마닐라』極東大學과의 一戰은 三日夜에擧行한바 三勝二敗로 日本팀이 勝捷하엿는데 當夜우리의 朴龍辰君은 宿敵가브고選手를 判定으로 擊退하야 昨夏極東選手權을 決勝戰의 敗를雪憎하엿다 이로써 朴君은比島遠征中에前後三次게임을行하야全勝하엿슴으로同日比選手權을掌握하엿다

第五回 京城…仁川間 往復驛傳競走成績表 【午前十時出發】

區間／順位	1	2	3	4	5	6	7	8	9
第一區 總督府 梧柳洞	(往十里) 安三鎭 一、九、四	(養正) 崔俊根 一、一〇、一九	(龍光) 李鍾祿 一、一一、一三	(阿峴A) 金斗仁 一、一四、二五	(平百) 洪正煥 一、一五、一七	(第二高) 金道植 一、一五、四七	(開城) 申鉉周 一、一六、三九	(京師) 文榮漢 一、一八、四八	(阿峴B) 張壽永 一、二〇、一〇
第二區 梧柳洞 富平	(往十里) 金丙天 一、五三、六	(養正) 宋觀鎬 一、五五、一三	(龍光) 閔泳星 一、五七、二六	(平百) 吳聖洙 一、五九、五四	(阿峴A) 方乙奉 二、〇、五一	(開城) 王寅根 二、一、二〇	(第二高) 崔得龍 二、三、二六	(京師) 李寅星 二、三、五〇	(阿峴B) 申鎭浩 二、九、三〇
第三區 富平 上仁川	(往十里) 金聖鉉 二、三四、四五	(養正) 趙世元 二、三六、一三	(龍光) 陳圭寬 二、三九、一五	(平百) 朴陽水 二、四三、〇三	(開城) 閔成基 二、四三、四七	(阿峴A) 李德寅 二、四四、五一	(第二高) 李鏞魯 二、四六、〇四	(京師) 三原 二、四九、〇五	(阿峴B) 徐向善 二、五六、四七
第四區 上仁川 富平	(養正) 柳海鶴 一、一五、三	(往十里) 金福吉 一、一七、三	(龍光) 邊天幸 一、一九、三一	(平百) 池永龍 一、一九、五六	(阿峴A) 朴判用 一、二四、一〇	(開城) 張寅鎬 一、二五、三四	(京師) 岡本 一、二六、三四	(第二高) 權赫世 一、三一、一〇	(阿峴B) 崔中成 一、四四、二八
第五區 富平 梧柳洞	(養正) 尹五龍 一、五三、四〇	(平百) 李正根 一、五六、三九	(往十里) 朴昌植 一、五九、一九	(龍光) 白圭福 二、三、一五	(阿峴A) 李鍵鎬 二、六、四一	(開城) 文錫徽 二、九、三三	(京師) 金義和 二、一三、一七	(第二高) 李敏弘 二、一五、三五	(阿峴B) 崔壽進 二、二〇、三六
第六區 梧柳洞 決勝點	(養正) 孫基禎 二、五八、一九	(平百) 文允善 三、四、三七	(龍光) 柳長春 三、七、九	(往十里) 閔和植 三、九、二九	(阿峴A) 崔樂圓 三、一〇、一三	(第二高) 李泰淵 三、一四、一	(開城) 朴承濟 三、一六、二〇	(京師) 崔□俊 三、一六、一〇	(阿峴B) 朴癸星 三、二五、四〇
到着順 往復 總타임	◇養正 四時間三六分一九秒	◇平百 五時間四分三十秒	◇龍光 五時間七分九秒	◇往十里 五時間九分二九秒	◇阿峴A 五時間二〇分三秒	◇第二高 五時間二四分一秒	◇開城 五時間二五分三六秒	◇京師 五時間二六分三〇秒	◇阿峴B 五時間三三分四〇秒

목에는愛愁의瘡痕 등에는殺人囚烙印

情死未遂者가殺人罪로前科者되여

到處에就職拒絶警察에哀訴

일즉이는 죽엄보다도강한사랑의 기사(騎士)엿건만 모처럼계획한 정사(情死)가 그만실패하야 여자만죽고 사나히는 그릇살어남어잇서서 뜻에도업는 살인죄라는죄명으로 징역을하고 세상에나오기는 햇스나 등에걸머진 무서운살인수라는 락인(烙印)때문에 직업을차저가는곳마다 문을닷고 밧지아니하므로 마지막에는 경찰에와서 사정을호소한 사나히가잇다 사일아츰에 종로서사법계에는 본적을 양평군갈산면 양근리(楊平郡葛山面楊根里)오백이십팔번지에두고 시내 서린동(瑞麟洞)칠십번지에 몸을부치고잇는 손월성(孫月星)(二八)이라는청년이차저와는데 그는일즉이스므살때에 가튼동리에사는 량아기(梁阿只)(二〇)라는여자와 사랑하는사이가되엿스나 여자의마음이 변한듯십흔로차린그는여자를다리고억지로정사를 계획하야 면도칼로 두사람의몸을 끈엇는데 여자는필경 절명하엿스나 사나히만은불행이라할까 다행이라할까 병원의응급치료로 살어나서 목에에욕상처만바덧다 그러고는 살인죄로 몰려서 징역 오년의형을밧고 태전(大田) 형무소에서복역하다가 지난일월 초하로날 가출옥이되여 자유로운 몸이되엿다 그러나 취직하려고하야 차저가는곳마다 살인수라는경력을 알고는모다깜작 놀라면서 밧지를아니하므로 그는할일업서서 종로서에 차저와서 딱한사정을 이약이하고 취직을 알선해달라고 호소한것이라고한다 (사진은 손월성)

隧道內에自殺女

삼일오후네시경부선히더、대전(燧部、大田)사이의터널안에서 이십세가량된 일본내지인 녀자로 자살시체가잇는것을대전역원이발견하고 조사해본결과 녀자는나회 이날오후 세시사십분경 현장을 통과하는동경(東京)행열차에가로 우로부터 뛰어들어 자살한것으로 판명되엿다

暴漢惹鬧二題

삼일오후여덟시반경에 시내주교정(舟橋町)일백이십사번지박주현(朴柱鉉)의집에는 어떤폭한 한명이술이 대취하야 들어와서야료를 치면서 닥치는대로 폭행을다하야 정문(正門)을 파괴하고 기타다수가구를 파손한후 길가는행인에게까지 무례한폭언폭행을 하다가 마츰내 본정서(本町署)원에게 체포되엿는데 그는 시내림정(林町)일백륙십팔번지 특허품제작소(特許品製作所) 강흑전언우위문(黑田彦右衛門)이란 자로서 작년세밀에도 폭행으로 본정서에류치되엿던일이잇다한다

이일오후 일곱시이십분경에 시내 서사헌정(西四軒町)일백팔십번지 강선준(姜善俊)의 료리집 황학루(黃鶴樓)에술취한폭한두명이들어와서 류리창문을깨트리고 가진폭행을다하다가 드듸여 부근파출소순사에게체포되여본정서(本町署)로인치되엿는데 그는시내 현저동(峴底洞)사십륙번지의오백칠호에 사는 운송점점원김춘호(金春浩)(二七)이라한다

"結婚"아잘가거라 青春도永離別!

結婚費用업서擧式못함을悲觀

春光등진看護婦飲毒

白衣"나이팅겔"의 春愁어린唏嘆

혼인날자는 갓가웟건만 비용이 업서서 할수업다고 그만『백의(白衣)의간호부』가 자살을 계획하야 봄을배반한 쓸쓸한 사건이잇섯다 삼일오전열시오십분경에 시내 소격동(昭格洞)사십팔번지 리덕규(李德奎)의 둘재딸 리보갑(李寶甲)(二〇)은자긔집에서 『크레솔』을한목마시고고민하는것을집안사람들이 발견하고 곳부근의전병원에입원시켜 응급치료를 밧게하엿스나여전히중태라고한다

봄조차 오히려 부러워하지안홀 처녀의몸이건만 무엇이 그들로하여곰 스스로세상을 버리게하엿는가?

그는일즉이고향인원주(原州)에서 그곳보통학교를 마치고상경하야 시내죽첨정(竹添町) 고려의원(高麗醫院)간호부과를마치고관철동(貫鐵洞)일백십구번지 민영진(閔泳珍)의원에서 간호부 노릇을 하고잇섯는데 지난봄부터 시내중림동(中林洞)대륙고무공업회사의 자가용자동차운전수 김종건(金鍾建)(二五)과 사랑하는사히가되여서 필경식으로약혼하고 이윽고오는 구일에결혼식을 거행하기로되여 지난달십일에 병원도그만 두엇다고한다

그런데 정작결혼날자는 각가워왓스나 그의 본집은물론 신랑의집도 가난하야 결혼식조차 거행하지못할 형편이자 탄탄한줄만 아럿든결혼가도(街道)에도 가난이 저해하야다난함을 절실히느낀그는 그만결혼도 청춘도다버리고 차라리죽엄으로써 깨여진처녀의꿈을이저버리려한것이라고한다

集會

▲中東學校同窓會 場所 同校內 時日 三月九日午後三時

天氣豫報 晴一時曇

高氣壓은 中國內陸에잇서서 七六七미리를 表示하고 이로부터 朝鮮을經하야 日本方面에얏터지고잇다 日本海北部에 七五二미리의低氣壓이잇서서 東進中이다 全朝鮮一般으로 日氣가조코 氣溫은木浦四度와 新義州의零下十度間에잇다 明日도日氣가 조타

昨日最高 六、四
最低 〇、四
今朝最低 零下 〇、四
今日正午 三、五

지각이예민하면 두드레기에걸려

두드레기는 의학상으로는심마진(蕁麻疹)이라고하는데 중세를말하면 피부의표면가차이잇는 가는혈관(毛細管)이확장해서 어떤부분에 보종이 별안간생겻다가 또는 별안간업서젓다하는것인데 이것이생길때는 몹시가려운것이 특증입니다 그런데 이병에는급성과만성두가지가잇습니다 급성은갑작이 단번에나타나고마는것이요 만성은 낫다가업서지고또 낫다가업서지기를 여러차례해서 심하면 몃해가도 안낫는것입니다

그런데 이두드레기는 반드시피부에만생기는것이아니라 속으로 기관지(氣管支)에도생기고, 위에도, 눈에도생깁니다 기관지에생길때에는 마치천만식(喘息)과가튼 발작이생기고, 위에생길때에는 구토가나고, 눈에생길때에는 결막염(結膜炎)과가튼증상이나타납니다

◇

이두드레기의원인을생각할때 누구든지 그원인이 밧게잇슬때를 따저보면 벌레지에 쏘엿슬경우라던지 옷이올릿다든지 호박닙이나 복숭아의털이 피부에다어서도원인이되는수가잇고 또는광선(光線)때문에도생기고 날이춥고더운데따라 생기는사람도잇습니다 그다음에 그원인이속에서생긴것을 헤아려보면 먹은음식이 소화가잘안되어 중간물질(中間物質)가튼것이생겨 그것이독소(毒素)가되어 그것이다시혈관으로 드러가서피부를자극하야 되는경우가 가장만습니다 그런데음식물중에 도생선으로는 몸에푸른빛나는생선 말하자면 고등어, 방어등속이만코 도야지고기, 닭고기, 조개, 새우, 게등속을 먹고 걸리는사람도잇스며식물(植物)로는 딸기, 메론, 게란, 우유, 커피—등속을먹고 걸리는사람도잇습니다

◇

이두가지외에 내장의병이원인이 되는수도잇습니다 가령 말하면 위장장해(胃腸障碍)라든 간장(肝臟)의병 부인의생식기병에서오는수도잇고 신경병계통으로 히스테리 전간증으로해서오는수도 잇습니다 이와가티 원인이여러가지가되는마큼 두드레기란병은 단순히 독립한병으로만도볼수업는것이며 원인이 안으로잇건밧그로잇건 혈관운동신경의과민과 불안한사람에게생기기쉬운병입니다

◇

두드레기의치료법—원인이 밝혀졋슬경우에는 그원인만업새면고치기쉬운것입니다 그리고급성으로음식을잘못먹어 생긴것이라면 피마자기름가튼것을먹어 배속에잇는것을모다사(瀉)해버리면됩니다 가려운것을막는데는 어떠—센드의『석탄산아연화리니멘트』(石炭酸亞鉛華リニメント)를 바릅니다 이것으로낫지안코 참을수업게가려운경우에는 가려운것을제하는 주사를마저도좃습니다 그러나만성이된두드레기는좀처럼낫지안습니다 이런때에는 칼슘주사라든지자가혈액료법(自家血液療法)이라고해서 자기피를뽑아근육안에주사하는법도잇고 아토판이란약을먹는것도좃슴니다

家庭

봄날의따듯한볏을 가정에도끌어드리자

마음의코드름을녹이기위하야 내외분함끠교외산보

봄이 되면 자연히 안집에잇지안코 밧그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기때문에 봄거리는 사람들로 대단히 복잡합니다.

×

여러분은 이봄에 어떤곳으로 외출을 만히 하시게 됩니까? 되도록 거리로 단이시지 말고 교외로 나아가십시오.

×

거리의 봄은 몬지가 떠돌고 사람의 왕래가만키때문에 대단 복잡하야 위생상 긔분상 대단히 조치 못합니다. 더구나 **전차자동차인력거** 구루마 자전차등이 복잡하게 단이기때문에 교통사고도나기 쉬움으로 거리는 밟길을옮길 필요가 업습니다

×

어떤 모던—껄은 고흔옷을 차려입고 얼굴과 머리를 고읍게 단장하고서 하이힐에 가는 허리를 휘청거리며 걸어가는 자긔모양을 뵈이기 위해서 사람만흔 거리로 돌아다니는지는 모른지만 적어도 하로쯤안 흐은 한주일동안 고달프게 일하시든 분이라면 가족들과가티 **교외산책을하는** 것이 제일 점잔코 신상 유쾌상조흘것입니다.

×

벌서 삼월! 봄볏이 포근히 나려 비치는첫봄이 안입니까 새엄이돗고 새가 지저귀고어러부텃든 시내스울이 고요히 흐르는 뚝으로발서 거름을 옴기는것도 퍽도 자미잇지 안켓습니까?

×

복잡한 세사를 잇고 봄아즈랑이 피는 뚝 붉은당기 입에 물고 나물캐러 다니는 소녀의 치마자락을 **가비압게흔드는** 봄바람을 쏘히면서 것고 또걸으면 새봄향기에 심신이 유쾌해 질것이외다.

×

『산보는 혼자도조켓지오 아득한 공상의 나래를 펴고 구십춘광을 품은히 쪼이면서 걸음발을옴겨 이리저리배회하는것도 조켓지오 그러나 사랑하는 안해를 동반하야명랑한 웃음과면면히 풀려나오는 이야기로 가는 거름발도가볍게 산책하는것도 조흘것입니다 그러나 어린애를압세우고 **아장아장거러가**는 그귀여운 모양을 뒤에서손벽치며따려가는 자미도 상상할수업스리마큼 조흘것입니다

×

그러나 봄바람이란 유혹의마옴 방랑한마음이 생기기쉬운씨—즌입니다 겨울동안 차듸찬바람에 움추리엇든 몸과마음이들떠오를때입니다 그러므로 되도록 동모와 단이거나 그러치안흐면 내외간에 단이거나 혹은 전가족이 모—도 단이어 다른세계에 **눈이가지안도록** 주의하십시오 봄바람이란 이상해서 눈에띄이는것이 모—두 조와뵈입니다 그러기때문에 좀더 행복스럽고 명랑한 긔분으로 이봄을지내기 위하여 가족은 가족끼리 내외는 내외끼리 서로서로 마음을 명랑하게가지십시오

×

봄바람이조타고 그저 마음대로 넘놀다는 어떤 불행이올지도 몰읍니다, 그러므로 녯날부터『호사다마』라 하엿스니이조흔봄에 비극이 생기지 안토록 마음과몸을 유쾌하고 행복되도록 가지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은 입춘 가정에대해 관심을 가지십시오

文換台

거주게등록부가잇는이상 호적등본초본이무슨필요

묻는말 나는경성부에 거주계를제출하고사는경성부민의 하나입니다 금년에어린것을보통학교에너흐랴고거주계등록부를가지고가서 학력증명을 해달라고햇더니호적등본이나 초본을첨부하야 오라고합니다 이미거주계등록부가잇는 이상또호적등본을 가저다가 무얼합니까? 그것은공연히까다려운 일이아닙니까? 더구나 저의번지는 호적등본이나초본을가저다가는 위험수속하기에 불급됩니다 부민의사정은 무시하고오죽까다롭게만부는부청을리해하기실로곤란합니다 (中林洞生)

대답 서울과가티학교는모자라고 학령아동은만흔 곳에서수용에초과되는 아동이만흐니까 것을잘와화식이기위하야년령조(年齡照)를잘하여가지고학령이미급한 아동을가리자는데정작의 의가잇는것입니다 그런데 거주계(居住屆)로말하면게출을할때에 호적등본이나 초본을첨부치안코 마음대로게출할수도잇는것이므로 거주계만으면전에하얏술지라도 그것만보고증명을해주지안습니다 그런대신에호적등본이나 초본은반드시최근의것이아니고 묵은것일지라도 첨부하야 제출하면증명을 하야줍니다 그것은 증명맛으는본의가 그아동의 생년월일을보고 학력에 해당한지 아닌지를알려는것이니까 반드시최근의 것이라고 ; 필요한것은 아니기때문입니다 그러타고 호적등본만 가지고는서울산다는것을알수업습니다 그래서호적등본내지초본과함께거주계등록부도 밧게되는것입니다 더구나최근우리경성에서는여러가지불상사를 내인후로 조그만일을 하나처리하는데도 꼭꼭정당한수속을밟지안코는못하도록 제도가고처저서 경성부관계자나 혹은사무당국자가 분명히아는것이라도 자긔가신용한다고함부로하지를못합니다 그러니까호적계원이 말한것도 그도일 것인데 그것을 그원의 불친절로아시는것은오해입니다(京城府戶籍係員)

녀성을보호하는 독와사『피스톨』

녀자의몸으로 만약에엇던남분녀석에게 욕을당할경우가 되엿다고합시다 주먹힘으로는 당할재주가업고 엄는손에잡히는 무기가업슬때 엇지할것이나 이런경우를생각하고 미국쉬카고에사는칼스트룸이란 남의거정잘하는사나이가 기게하나를 발명햇습니다 사진에보이는바와가치넙적다리에다 붓드러맨 독와사(毒瓦斯)피스톨이니 급박한경우에『장까지의서오』하고 넙적다리를내노은뒤쏘거드라도 치맛자락을 방아쇠에 달린끈을잡아다니면독와사가튀나가버립니다 그러면한노릇이나닙니까 범강다리가튼녀석아면무얼합니까 코를대자나가자빠질것입니다

내가본조선녀성 (五)

咸大勳

신여성의 이러한 단점이 잇는 반면에 오히려 교육밧지못한 구여성들의 장점이 잇습니다 물론 교육을 밧지못한 무지가 그들에게는 잇다하드래도 자긔희생적인 정신만은 ,변치안코잇습니다 그들은 아—모런생활상고통도 정신적고민도 다참어가며 여자로써자긔의할일을하고잇습니다

그러면 어찌하야 조선의 구여성은 그처치도 자긔희생적, 인내적 정신이 일관한데 신여성은 경박하고 괴괴적입가요?

여긔는 우에서도 말한바가 잇지만 신교육을 바든 여자들이 그여사가 젊기때문에 자긔자신을 너무도 놉흥게 평가하기때문입니다 실은아—모것도안이면서 내가적어도 ××인데하는 자부심만이 강한때문에 가정을 등한히하고 남편과자녀를 등한시하는일이만흡니다 녀자의 사회적지위가 놉흥면 그얼마나 놉흔것습니가만은 아—모리 여자가 사회적지위가 잇고 고등교육을 바덧다하드래도 여자는 여자니 만큼 여자의 본분을안해나 어머니로서의 할일무를 하여야할 니다, 그러치안흐면 그국가나그 민족, 그사회는 망처지고 말것입니다

×

아무리 사회적으로 아—모리훌륭한 남편이라하드래도 그 가정에 도라오면 선량한남편이 되여야하고 또아—모리 훌륭한 안해라하드래도 가정에서는 어진안해가 되여야 하는것입니다 가정을 가지고서 이근본정신을 이저바린다면 그가정은 결국 비극이나 파란의종막이입어 남것입니다

×

나는 조선여성문화발전을 위하야, 조선여자교육을 보급시키어야 할것을 절대로 주장하는 바이나 그 교육바든 신여성이 좀더 조선의 여성을 대표할조선여성으로서의 표본이될 타입을 갓지 안허서는 안되는것임을 역설하지 안흘수업습니다

×

더구나 여자고보나 여자전문학교에서는 조선여자로써 가질 타입 조선적인 여성의 타입을 가르처 만들도록 하여야 할것입니다

그러므로 여자교육에 잇서서 필요을가치한 정서(情緖)교육이 필요한것입니다 이런의미에서나는 문화서류에 대한 수양서류에 대한자료를 그교과서에 만히 편입하여 여자교육상에 문화적정서가 흘러넘치도록 하여야 할것입니다.

학문이란 결국에잇서서 실생활에 적당한것(보편적으로말하면) 이라야 할것입니다 아—모 만흔 지식을 가젓다 하드래도 여자인 이상 여자는 여자로써 외직무를 하여야 할것임은 결코 여성을 무시하는데서 나온 말은 안입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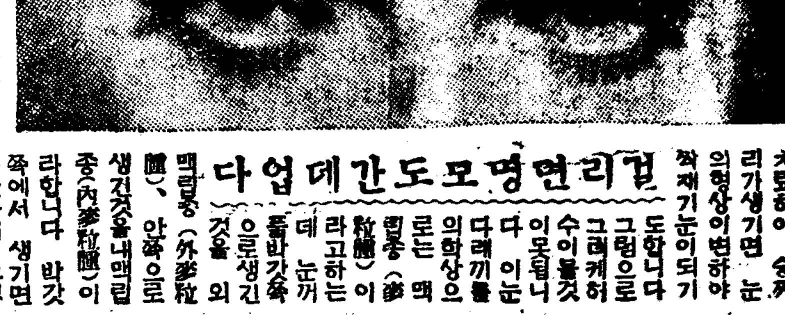
다이즈음의 신여성은 독서를 하지 안흡니다 향락적인 오락적인 일에 도취는 될지언정그 인격을 도야하고 학문을 향할 서적을읽지안흡니다 학교나 온것을 유일한 간판으로 알고 독서를 하지 안키 때문에 일반적으로 조선의 교육바든 신여성은 그정도에 비하야 대단히 무식한것입니다

이것은 결국에잇서서 조선의 녀성이 무식하다는것을 말하는 것이니 조선의 녀성은 좀더독서할 필요가 잇다고 봅니다

쉬게일본녀성과 이야기를 해보아도, 그들의 지식정도에비해 상식이 넓은것에 놀래이엿고로시아에서도 이야기해보면 그들의지식은 해박한데놀래이엿습니다 나는 재작년엄마동안을서울 잇든어느백계로시아 부인에게로시아말을 배우기겸 한주일에삼 사회식단이엿엇는데 그부인의 해박한지식에는 놀래이엿습니다 그부인은 옛날 모스크와 대학 불문과를 나온 녀성인데 나는 여러가지로 경탄한일이만 엇습니다

어떠튼 조선의 일반남성도그러케안흘것은 안이겟지만 조선의 여성은 좀더 여성적이여야 할것이며 좀더세련된문화적 여성이되여야 할것입니다 (끗)

눈=다=래=끼=고=치=는=법



걸리면명모도간데업다

날이 따뜻해지기시작하면 눈다래끼가 만히 생기게됩니다 두말할것업시 이것이 눈에생기면 괴롭고 거북하고, 어떤경우에는 심한시어면고통도 잇슬뿐아니라 잘못 치료하야 승자리가생기면 눈의형상이변하야 짝째기눈이되기도합니다 그럼으로 그러케 되면 수이물것이못됩니다 이눈다래끼를 의학상으로는 맥립종(麥粒腫)이라고하는데 눈꺼풀바깟쪽으로생긴것을 외맥립종(外麥粒腫), 안쪽으로생긴것을내맥립종(內麥粒腫)이라합니다 바깟쪽에서 생기면 그부 피부가벌거케부어서 아푸고, 얼마안가서 그부은자리한복판이 노라케곰겨서 터저버립니다. 안쪽에서생기면 겉쪽은별로부은것갓지안흐나 눈거풀을 까뒤집고보면 결막(結膜)에 눈다래끼생긴곳이 붉어지며 누—러케고름이생깁니다 이두가지경우에 어느쪽을 막론하고 종세가몹시심해지면 그생긴자리가귀질뿐아니라 눈압흘눌러서 희지우룹게도하고 귀연허웅우리가생깁니다 이웅우리는 그부분림파선(淋巴腺)이 붓는까닭입니다 그런데이병은 대개한개만 생기고마는경우가만치만 악성인경우에 한꺼번에 세네개식줄다라생기기도하고 한개가나어업서지면 또하나생겨서괴롭게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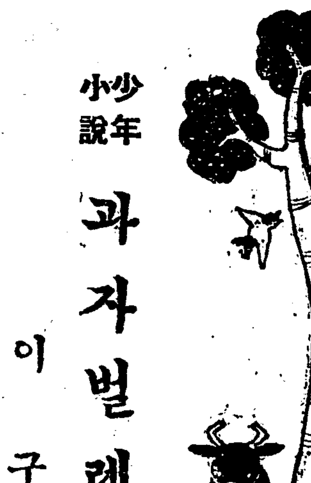
◇

이병의원인은 화롱균(化膿菌)이 눈의지방선(脂肪腺)에 드러가서 생기는것인데 남은번지가드려갓다든지 떠러운손으로 눈을비비기때문에 걸립니다 그리고 만성결막염(慢性結膜炎)잇는 사람이봄새되면 눈에충혈이되어서 눈다래끼가 생기기쉽고, 꼭써야할안경을 벗고지낸다든지해서 눈에자극을주어도 생기기쉽습니다

눈다래끼가낫슬경우에는 소위온엄법(溫罨法)을 더웁게해주는것이상책입니다 그래야만부어가 떠지지를안코 곰을자리가 한군데로모이고, 적게, 얼른곰겨버립니다 다, 귀미테웅우리가생겨우면 중한눈다래끼이니 의사에게 보이는것이안전하고, 자주생기는사람은예방하는 주사(注射)가잇스니 오대마저두면면합니다

少年小說 과자벌레 (二)

이구조



『하하하……』

큰애들만 이상한것을 아는모양이고 다른 애들은 대강 짐작쫌 하는지 마는지,『무슨일이 낫나부다』하는 낫으로 서로 처다볼따름입니다.

『태호? 애매하게시리 불리워가서 좃켓만 처? 내노호라고 그럼게지—』

하고 나히 먹은애 하나가 태호보고 눈을 슴벅감엇다 뜨면서 터가리로 수복이를 가르첫습니다. 이 한마디에 꼽게 꼽게 싸아 두엇던 태호의 원망이 터저나오게 되엿습니다. 바로 전 전 토요일날 수복이한테 사람으로서 참아 밧지못할 대접을 바든 태호엿습니다. 수복이는 그때 과자가게에서 한일은 꿈이라는듯이 그후 태호를 맛날시라도 시침이를 뚝떼여버렷습니다. 그때 일이 머리에 떠돌자 태호는 몰불울 헤아리지 못하고 수복이에게 대들엇습니다. 역성을 들어주는 애 하나 업슬때 수복이하고 단둘이 부디칠줄은 꿈에도 생각못 하고—

수복이로 말하면 힘센 애들에게는 꿈직도 못하지만, 저보다 힘이 약해보이기만 하면덥벼드는 정집입니다. 그래서 하급생(下級生)들은 수복이만 보면 흠흠 놀래는 애까지 잇는 터입니다. 그런까닭에 『아이대장이라는 별명이 잇섯습니다.

태호도 수복이와 나한반 동갑이지만 키가 적고 원악 몸이약해서 암죽못하고 부하노릇만해 오든것입니다. 그러던 태호가수복이한테 해내는것을 보아도무보고,

수복처이가 잘못한것이 잇는가봅니다.

힘센애들이 뻥둘러서서 수복이를 밉살굿게녀이고 태호편을 들어주는지라 수복이는느루고 보잔』 고독만가슴에 충게되엇습니다 이때에 먼저 사무실에 들어갓던최이뿐이가 와서 선생님이 빨리오랜다고 일러주엇습니다.

『태호 눈물 깨깨 씻고 들어가라』

큰애들은 혹 저히들에게 화가 밋칠가 보아서 책보를 끼고빨빨히 집으로 돌아갓습니다.

수복이는 사무실문을 열기전에 뒤떨아오는 태호를 돌아다보고,

『선생님께 바른대로 말하면따귀를 부서준다』위협을 해노코들어갓습니다.

선생님은 쓰시던것을 멈추신후에

『왕수복—웨사금 아버지가 안주시드냐?』

『네—!』

『수업료 타내서 딴짓하고 그러지 안허?』

『안냐요』

수복이는 시침이를 잡아떼고제법 독독히 대답햇습니다.

우리[illegible]

내 창칼하구 바구
니도 꺼내주 언니
따라 바테가서 나
물캐올께. 달래캐어
서 장아찌 무치구
냉이캐어 국끄려서
우리 냠냠냠냠 맛
잇게먹자 응 수창
아.

童謠 (권영진)

音協主催 音樂講演會

조선의 음악문화 수립을 위하야 꾸준히 노력하고잇는 조선음악가협회(朝鮮音樂家協會)에서는 오는 삼월사일 오후여듧시부터 음악과강연회(音樂과講演會)가 개최된다는데 연사와악사는다음과갓다

一、피아노二重奏 金福實 金恩子
二、講演(리듬) 朴慶浩
三、獨唱 朴姆姬
四、講演 李殷相
五、獨唱(테—너—) 李升學

처녀의대하증

問 금년이십삼세인 처녀이온데 몇해전부터 대하증이발생되여 남모르게고통중입니다 치료를하면나흘까요 복용약과달니치료하는 법을 명백히 가르처주시고 또 복용약처방을 가라처주시며, 치료기한은 얼마나걸리겟스며 어떠방법이 더속합니까 근일에는악취가납니다 치료만하면속낫겟습니까 (西大門一讀者)

答 대하증은 자궁내막에 염증세가잇슬때 발생되는 한증세입니다 처녀라도 걸리는것이오며 내복약도 복용하시여야되고 국부적으로약을넛코 심하면 수술까지라도하여야 완치될것입니다 근일에는 악취까지 난다하오니 혼자고통치마시고 부인과전문의사에게문의진찰하여 속히나을방도를 차즐것입니다 비용과완치되는시일은 병의증세에따라 다르고로 말삼키어려우며 치료하면 완치될것입니다 더구나 처녀이시라니 단순한병인지도 모르니다 그런고로 속히치료를바더 장래의 행복을구하십시요 (大學病院伊藤內科 朴秉來)

春風 (19)

夕影 作·畫

영옥의 사은사에 졸업생들은 늑겨우는것이다 교원들도 더러는 눈물을씻는사람도 잇섯스나 교무주임만은 영옥의뒤시말에 불쾌한드시 얼굴을찡호리엿다 영옥이자신도 울면서말한것이다 영옥이는 일동에게예를하고 소매人속에서 손수건을꺼내여 얼굴을씻스며 자리로와서 안젓다

졸업생들뿐아니라 교원들도영옥의 열변에 감격한모양이다평소에 입을잘띄이지안튼영옥이로서 그러케구변이조코 웅성이이상하게도힘이잇는것에 그들은놀란모양이엿다

—영옥은말도잘해—사람을울리여—이것은 졸업생중에 한녀자가한말이다

—어허—의외로군—

이것은교원중에서 그누가 한말이다

이번에는 교장이 훈시를할차례다

교장은 기—다라케 느러노핫다 물론 졸업생들도조흔말이라하엿스나 오른삼강을내세우고 녀필종부니 공자와맹자의이유기를 한참느려노하서 교원중에서도하품을하야 졸업생들이웃자 그선생에무안햇든지 얼골이벌개지고 교무주임의눈총이 이상하게쏘앗든것이다

다과가나아오고 여흥이시작되엿다 교무주임의『학도야학도야 청년학도야』노래도우수엇거니와 녀선생의『닭소리』흉내도우수웟다

밤늦게야 여흥이끗날사은회가 파하자 모두들 헤여젓다

영옥은 자리에드러누어서 교장과 교무주임이이야기한 결혼문제로 잠을못이루고 골몰생각하엿다

사실 오늘이밤 까지는 이기숙사에서 잘수도잇고 하지만래일부터는 발붓칠곳도 업는자긔다

바람에날려온 씨앗이라도 떠러지면 뿌리를 박고는 곳이빠들곳이잇지만 자긔는 이제부터우숩게되는신세다

나는새도 보금자리가잇고 길버린지도 굴이잇다지만 자긔는 이기숙사를 나아가면 갈곳이업는 가련한 인간이다

그러고보니 앗가의 그결혼문제에 응하게되면 긔구한운명을 이울수는잇스나 아죽자기는 결혼에대하야 생각도해보지안엇고 또는 아모리 세상에드믄사나희라하드래도 생전보도 듯도못한사람에게 시집을가겟다고 응낙을한다는것이 너무나 우숩고어려운일가렷다 교장과 교무주임의 자긔에대한 호의는 저바릴수가 업는것이라하드래도 그들의호의를 저버리기어려워서 일생을망칠수는 업섯다 흥하든망하든 자긔의사대로 사라가는것이오히려 사람다울것이다

지금까지 학교에서 배운것이 이니 그것을가라친이들이 자긔를 봉한리한곳으로 쓰려너호랴는것이 우수웟다 그야교장의올 절적원조에대한 그은혜는 언제이고 갑허야하겟지만 그것때문에 거기에대하야 선듯응답을한다면 돈과정조와 바꾸는것이나 그리차이가업슬것이다

그뿐인가 태식이가잇다 지금은 서신왕복이 끈친때라하여도 그가 학교만맛치고 나아오면 그가 자긔를 차질것이요 자긔도 그를 차질것이다 그런고로 그가 만이 변한다는것을 그때에 가서 알일이지만 그래도 그는 자긔를 저버리지안을러이니 그를위하거나 자긔를위하거나 어떠한 고초를 겪드래도 그때를 기다려보는것이 조흘것가텃다.

그러나 자긔와 그와의 사랑에대한 언약이업섯고 다만 피차에 눈치로만 어찌생각하고잇거니—하고만 집작하고잇는것이 비록 자긔가 태식이를 연연불망한다치드래도 태식의 마음을알수가 업섯다.

그는 지금스스로실망락담하엿다그래서그는호득이기 시작하엿다 그리다가언듯그는전일에태식의게서온판지중의 한구절을생각하얏다

그편지는 태식이가자긔에게한 편지중에 제일길게씌편지엿다 류창하게나려간문장이 자긔를울리기도하엿거니와 그편지의사연이 매우신비스러웟다

그것은 편지가아니라 신문잡지에나는 감상문갓기도한데 내용은 이것이라고확답할수업스나 자연인간, 련애문제등—여긔에대해서 그가사색하고번민하는 그어느부분만을 추려서쓴것가치편지도아닌 시와갓튼 그러나영옥의마음을설레게하고 울도게한편지엿다 울면서도 그편지를가슴에품게하고즐겁게한 그어느한구절이잇섯다

曆

三月五日 (火) 舊二月(小)初一日 庚辰·金·寅·滿

●祭祀에宜함
▼驚蟄六日(舊二月初二日)
▼春分二十一日(舊二月十七日)

라디오

三月四日 (月曜)

◇午後六時 이야기(京城으로부터[illegible])제비다리 尹白南
◇同六時二五分 產業뉴—스 經濟解說 金弘鎭
◇同七時三〇分 講演 新興滿洲國을보고 朝鮮日報主筆 徐椿
◇同八時 流行歌(레코—드演奏)
◇同八時一五分 西道歌謠 一、愁心歌와엮음 二、山念佛 三、寧邊歌 四、中日歌 五、자진난봉가 金玉葉 李眞鳳
◇同八時四〇分 (東)管絃樂 베—토벤作曲 交響曲第三番「英雄」(第二回) 第一樂章알레그로콘부리오 第二樂章葬送行進曲 아다지오,앗싸이 第三樂章스케르쪼 알레그로비바—체 第四樂章 終曲 알레그로몰토 日本放送交響樂團 아우그스트, 윤, 켈

三月五日 (火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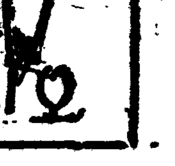
◇午後〇時五分 歌謠 一、春眠曲 二、相思別曲 崔眞姬 高蓮玉
◇同二時 常識講座 死에對한考察(二) 金東仁
◇同六時 첼로獨奏와피아노三重奏 一、첼로獨奏 (가) 라—르고 헨델作曲 (나) 니—나 페르골레지作曲 (다) 안단테·칸타빌레·차이콥흐스키—作曲 二、피아노三重奏 (가) 안단테 하이든作曲 (나) 피나—레 하이든作曲 (다) 노르웨이텐스·그리그作曲 成二榮 피아노伴奏 村上裕一 피아노 村上裕一 바이올린 李凔基 첼로 成二榮
◇同六時二五分 舞踊復習講座(十四) [illegible]
◇同七時三〇分 講話 파라과이의聯盟脫退 朝鮮日報外報部長 洪陽明
◇同八時 京畿歌謠 一、時調와男唱지름 二、갓고조 三、제비가 四、달거리 崔蓮香 金泰運
◇同八時三〇分 映畫이야기 朴昌濟
◇同九時 伽倻琴散調와併唱 一、伽倻琴散調 (가)진양조 (나)중모리 (다)진모리 二、併唱(가)短歌 大丈夫 (나)唱劇調 赤壁歌 姜太弘 鼓手 丁元燮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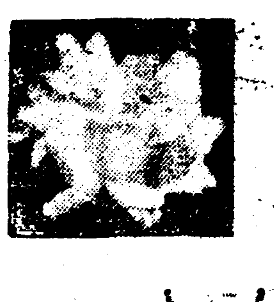
(第一放送)

◇午後零時五分 浪花節
◇同二時 修養講座
◇同六時 童話
◇同七時三十分 (東) 講演
◇同八時 俗曲과小唄
◇同八時二十分 (大) 歌謠曲
◇同八時五十分(東)라디오드라마

三月六日 (水曜)

◇午後〇時五分 레코—드音樂 一、소프라노獨唱……(에미·벳렌도르프) (가)로—레라이 獨逸民謠 (나)菩提樹…슈—베르트作曲 二、테너獨唱……(리하르트·타우버) (가)流浪者…슈—베르트作曲 (나)海邊에서…… 三、管絃樂……(伯林國立歌劇場管絃樂團指揮…보단쓰키) 天國과地獄序曲……오펜바크作曲 四、二重唱…소프라노…[illegible] 빨당레너미컬빌라벨라 미카엘라와돈호세의二重唱…비제作曲
◇同二時〇分 趣味講座 삼짇날과動物의迎春에對하야 [illegible]
◇同六時 童話 尹石重
◇同六時二五分 講話 地久節에際하야 淑明女子高普 金[illegible]
◇七時三〇分 常識講座 올림픽大會에對하야 培材高普 崔仁浩
◇同八時 音律 一、長春不老之曲 二、吹打 三、길군樂 四、打鈴 奚琴李基福 大笒金一學 細笛李鳳學 杖鼓金一字
◇同八時三〇分 連續講談(二) [illegible]
◇同九時 西道歌謠 一、[illegible] 二、愁心歌와엮음 三、孔明歌 [illegible]





史上에나타난 藝術家의 群像 (18)

湖岩

高麗名筆은 누구인가?

高麗의 文學家柏李奎報는 東國書家를 批評하야갈우되 新羅의金生은 王羲之와가튼 神筆이니 그글시는 맛당히 神品第一에 置할것이라 하엿고 高麗에잇서서는 僧坦然을 金生의 다음가는 神筆이라하야 그글시를 神品第二에 두엇고 晉陽公崔瑀의글시를 神品第三에 두엇고 僧伸의글시를 神品第四에 두엇다 이러케 李奎報는 新羅의金生과 高麗의坦然 崔瑀 僧伸의 글시를 順次로 神品의等級을 매여 그들에게 最高讚辭를 드리엇다 그러면 이批評이 正鵠을어덧느냐하면 반드시 그런것도 아니다 兼齋雜記에는 李奎報의 이批評으로써 權貴에게 阿附함이요 公論이 아니라고 헐어말하엿다 이는얼마큼

酷評에 지내치는듯하나 崔實히 理由가잇는 말이다. 晉陽公崔瑀는 當時高麗天下를 뒤흔든 權臣임으로 李奎報의 崔瑀에게對한 稱讚이 阿附한다는 譏貶을 免하기 어려울것이다 그러타고해서 全部를 無實에 돌리거나 否認할수는 업다 崔瑀를 除한外에 모두가 그讚辭를 바들만한 名家들뿐이며 崔瑀도 말하드라도 善書가 아닌것은 아니다 다만그의書를 金生과 坦然의그것과가티 神品의계에 書列한것만은 過當한 評裝이니 이로해서 李奎報書家評의 今日價値가 減殺된 感이잇다.

그러나 高麗에 드러와서 神筆은 마치 물라도 一代名家로 僧坦然을 推崇함에 對해서는 누구나

異議가 업슬줄로밋는다.

그리고 僧伸도 名家임으로 坦然과 並稱하는것이 不可한것은 아니다 그러나 사람을 따라 或은 學士洪灌을坦然과 並稱하기도 한다 李奎報는 洪灌을 妙品第一에 두고 文公裕를 妙品第二에 두고 그他寶玩、遊休、鄭文孝、柳公權、金周貫、奇洪壽、張自牧、僧生、丁然을 妙品에 두엇다 그러나 評者自身이 말한바와 가티 그들의글시를 아즉 몸소 目睹하지못한것이 잇슴으로 함부로 優劣을 매일수업고 그글시들을 全部본뒤에야 仔細히 論評이며 그러치 안흐면 後來의 博識君子를 기다릴수 밧게업는줄로말하엿다 이로보면 李奎報의書家評의 眞價를 알것이다 더구나 그는

高麗末期 조금 以前의 人物임으로 그後에 나타난 名筆인 李嵒(암)과 韓脩가튼이에 이르러는 言及치도 못하엿다 어쩨든지 高麗朝에 잇서서 書家가 輩出한것만은 事實이니 君主로는 王太祖를 비롯하야 仁宗 明王과 恭愍에 이르기까지 모다 書道에 堪能하엿고 僧侶士夫逸士사이에 筆家로 이름잇는이가 十指로 꼽고도 오히려 한갑절이나 不足하게 될것이다 그러나 너무 多數가 되어서 그런지 或은 크게 超越한이가 업서서 그런지 오늘날에 이르도록 筆家에 對한 確實한 定評이 업는것이 遺憾이다

그러나 억지로 當時및 後世에 모든 書評을 綜合하야보면 高麗初期에는 代表的으로 두드러진 名筆을 찾기어렵고 中期에 가서

僧侶에는 坦然이 뛰여나고 士夫에는 韓脩과 洪灌이 뛰여나고, 末期에 가서 역시 士夫中에서 李嵒(암)과 韓脩와 가튼 名筆이 뛰여나왓다 이와 거의 同時에 鄭頏와 李齊賢이 또한 一世를 울리엇지만 鄭頏, 李齊賢이에 對해서는 書家로 論함에는 너무나 그人物이 놉고도 크다하겟다 특히 李齊賢에 이르러는 그學問과 그詩文과밋 그事功이 엄처나게 超出하니만큼 다른機會에 말하기로하고 여기서는 上述한 몃몃名家만을 論하야서 대강그의來歷과 글시를 評하려고 한다 그러나 名家의 選擇에 잇서서當否는 나의 알바 아니다.

未完成夢幻曲

李軒求

明鏡속에서보는바 自己와 똑가튼 한個의人間의輪廓을 다른 第三者에게 거짓업시傳達하기는 매우어려운일이다 마치 世界的名畫家가 自己自身의生命을 救援할수업슴과가티 世界의偉大한文豪로서도 眞로 自畫像—自身의로 저有名한루소오의『懺悔錄』속에서도 往往赤裸裸한루소오는 表現에는 幾多의主觀的露呈과讚美가 섞기지안흘수업다。그러므로 以外의 또는以下의 犧牲을 차저내게된다。

하물며 나라는平凡한사람으로서 어떠케 自己를 如實히그려낼수잇스랴? 오직 입이손에잡은 이편이 自己를카리카추어(戱畫)로맹그는것은 容許하드래도 自己를 歪曲식히지나말기를 努力할뿐이다。

× × ×

知識—나는 生理的으로 눈이크다。이것이 나의 唯一의特徵的存在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눈은 날카로운 觀察을 가진 銳眼은아니다。그러타고 묵묵스러운 멀거니 光彩를 일허버린半眼은勿論아니다。羊과가티 柔順한 그러면서도 어데인지 자리잡히지못한不安이 떠도는 무엇을 꿈꾸는듯한눈이다。그러므로 嚴하고도冷徹한 男性的눈이라기보담도 仁慈스럽고도柔順한 女性的눈이다。눈은 그人間의良心을 反映한다 하거니와 내눈속에는 내性情까지도 表示되여잇다。나를 흔히『어린애』와 갓다고嘲弄이 아닌眞情으로의 評을 각금듯거니와 이것은 幾分의 內性格을 反映하는 눈에서發見, 直感하는것일것이다

×

『어린애』라는 이말은 一의愛稱일지는몰으나 男子로서는 名譽스럽지못한 稱號다。그러나이 한마듸말은 나의全的表現일지도 모른다。

나는强實한 自信잇는自我의信念으로 行動을 把捉하지못햇다 이것은통히 남에게 親愛바들수잇는性格일지모르나 남에게敬畏될바人格의 所有者는 아니다。나는남의동무가되고 老幼의區別이어시 가튼水平線에서 서로親合할수는잇서도 내가남의우에서 또는 압장을서서나가기에는 너무도 支配的威儀를 가추지못햇다。나는 光明스러운大路를 活氣잇게 뽑내고거를수업는바, 에 끌리지안을 人生行旅의豫行者가 되랴한다。여기에 내小心的 또는瞑想的運命이잇다。

× ×

그러나 이 無能力한 내自身속에는 한個의무서운崩芽가잇으니 그것은 곳 罪를犯할수잇는 또罪를지을수잇는바 潛在性그것이다。우리는 어린이에게서 純眞한 童心을 發見하는 反面에또한만흔 反抗的無我慾的罪惡性이 潛在해잇슴을본다 나는 無時로 내自身속에 이두가지를 오히려 後者를 强하게 認識한다 이罪惡이란 勿論 旣成된 因習과 道德이 律하는 罪惡이다 사람은 이참다운 罪惡性의 所持로서 實로人間的인것이다 不幸히도 나는 이 實踐的能力을 缺如하엿다 그래서 나는 드듸여 無邪氣한『어린애』로서 남에게 認識되엿다 그러나 내마음은 恒常 無時의 攪亂者—反抗者—로서의 武裝을 解除하지 안코잇다 이것이 내가 人間에對한 一의 態度일것이요 또한 叛者로서의 道德律이다

『쥬을·르나ー르』는 이러케말햇다—『때로는 사람을 窓에서 떼미러트리고십다 또 때로는自己自身을 떠러트리고십다』그러나 나는 이말을 理解할수잇다 나는 언제나 二層이나三層이나 또는 나무우에서나 어데던지놉흔테섯슬때는 누가 나를뒤에서 떼밀가보아 아니 내가잘못떠러질가보아 몸에소름이끼친다 나는어느때나 泰然하게 놉흔곳에 干압해 서본일이업다。

× × ×

나는 내몸에서 내上册가 흠시 또 내말이自然스럽게 流暢하게 나오지못함을 無限히롭게 생각한다。더군다나 마음을 터노코 한번크게 웃지못하는 나를 미워한다。어쩌지 나는 내몸과 마음이 어느곳에나 安定치못하는 不快와苦痛을 느낀다。그러나 누가 날더러 네身上—生理的組織—에서무엇을 第一사랑하느냐? 고물으면 내눈이 내엽굴의特徵과가티 나는 내입을가장 사랑한다고對答하리라 나는 내입이 男性的으로 크고도 힘잇고무겁게緘門가티 다처지지못함을 원망한다 그러나 나는내입이 分明코 魅惑的이라는것을밋는다 거기에는情熱과純情이함께 自然스럽게 나타나고잇다 그러나 結論으로 나는當로未完成品이라는것以外에 다른適切한言詞를 차즐수업다 나히먹어서도 어린애와갓고 男性이면서도 性的(中性的)인것, 더욱現實을 無視하는바, 熱情과夢想을가지라는것—그러나이것이 나의先天的信念인 主觀的純粹意慾과純粹行動의 結果다 잘못말하면盲目的小主觀的妄想을 隱蔽하게所有한人間이라는것이다 남의눈에 남을수도잇고 또 남어잇지도안는바 矛盾된存在, —그러하야, 드듸여 人生의 그늘을 그림자와가티 따러단이는 외로운存在에 끈치는바 이것이서命名하야『未完成夢幻曲』인 나自身의亂舞다

文壇에사러진挿話
『復活』과『하이델베르히』 土月會公演과카츄샤役
『白潮』雜誌를에워싼秘話

⑩ 路傍草 記

月華는매우 滿足한모양

이엿고 또는 自己의가치든態度가 이동입헤서는 며무過해엿다고 생각하엿든지 그의 數演한등엽골이 조금 縮減해보혓다 十月會同人들은 도중바라고謝을하라는것은아니엿슬것이다『朝鮮의文化를』朝鮮의文化를 하고 外國의劇壇과가티 어서어서 우리들도 豪華하게 盛壽잇게—그리케 新文化를樹立해보자는 熱意에서出發하엿슬바라 月華도朝鮮의한女人으로 여기에 贊同하고나서려니하엿슬것이다 그러나 月華는 가난하엿다 가난하여서 演明(?)을中途에나아왓고 가난하니그는 生活을먼저하여엿슬것이다月華의所謂대로 出演契約을하여다그래서

月華가『카츄샤』로扮裝하

게되엿다 月華의 너무도 일족이放縱한生活이 이『카추샤』의藍賢演劇에 큰成功을하게하엿다그때나 지금이나 『카추샤役』으로 이月華를 너머드린女優는 업섯다고하여도 망녕된말이아닐것이다『하이델베르히』에도女主人公으로나와섯다

朝鮮에劇壇이잇스면 十月會를이술수업고 十月會가잇다하면 이月華를이저서는안될것이다 劇人을 膝待하는 朝鮮에서그朝鮮의 劇壇을爲하야 犧牲된사람 貢獻이잇는사람이 잇다면 이月華도 빼여놀수가업다 왜들 藝術方面에잇는사람의 表現을몰리치고고 私生活들을 파고드는지 모르겟다그런고로 여긔서 月華의私生活을 말하지안켓다 彼女는그뒤로生活難에쪼들려 이리글고 저리굴다가

不幸한죽엄을體驗하게

되엿다 그가죽을때에도 舞臺의 꿈을가슴에품고갓스리라。

◇十月會 第二回公演은 大成功이엿다 二千圓이나드린(消耗된것도마찬가지)經費(?) 엇슬 차고 朴氏의 處事方法에對한 不滿其他眞情으로 純粹劇研究團體인 十月會의同人들은 解散을 하고 李白水 李素然 元雨田 朴勝喜氏等이 再編成하야 興行團體로서의十月會로 여러해를 朝鮮十三道를 巡廻하엿다

朝鮮演劇史의큰페지

朝鮮의劇壇에 黃金時代 黎明期가잇섯다면 十月會의 一二回公演時代일것이다 十月會이뒤로부터 巡廻劇團에도 所謂劇本이라는것이생기고 外國劇을紹介하게된것이다

暴차자할 十月會가 瓦解가되자 白潮雜誌도 露雀의資本不足으로 회지부지 終局을 보게되엿다 그래서 그同人들은 몃츤新聞社에 就職을하고 新聞雜誌에 執筆하는等 時代의推移와함께 變動들이되엿다 한편에서 文藝復興說이 나고하는 이때에 白潮派同人들의 再集合이 언게될지 모른것은 이 지난때일이라 다시 追憶할 必要가 업다고하는 路傍草는 알바가업다 十月會의 그때 人物들도 그대로잇스니 이混亂한 朝鮮

劇界에다시금 새旗幟를들

고 나설 勇氣가업는지, 海外劇紹介의 『劇硏』도 맛당히 잇서야 하겟지만 朝鮮新劇研究團體도 따로잇섯스면하나주저넘게 路傍草가 입뻐리를 대일테가 못된다 演劇도 演劇이러니와 재능이잇는 갓지못한다면 또모두가水泡로도라갈터이나 큰篤志家생각잇는 金主가 나서지안으면 모두가 속절자난 그렇치안으면龍頭蛇尾가될것이다

文藝批評의基本概念과 評家의教養問題 (三)
—主로朴泰遠氏의時評을論함—

嚴興燮

作品에 잇서서의 偶然的인部分 그것은 다만 不必要하다고 輕率히 斷案을내릴것이 안이다 그偶然的部分이란 언제나作品全體에 이여노은한개의고리(環)로서의 役割이업지안타는 것을 이저서는안된다、

君은 또한 朴泰遠氏의作『생호래비』를評하는데잇서 曾데업는 蛇足的序論만잔득늘어노코 정작하지안으면안될

作品 本質評은 한마듸로 비처내지못하엿다。그리고나서 다만『—이후조은 作品을 期待하고『생호래비』에대하야는말하지안으려 합니다』하엿슬뿐이다

그리고도한 얼토당토하지도안케 (朴氏를말함—筆者—)을 아메論한 두룬(그는누구인지?)보다도좀 놉게치고잇다는 것을 아조 이機會에 말하야둡니다—하고 서두른

秋波 를보낸것은 實로頗할노릇이다 도대체評價라면이 따위 漠然한 그리고 無權威한 言辭는 엄쯤이못그려워서도 敢히못할말이아닌가?

그아甲의作品은 엇더코 乙의 作品은엇떠타를 如實히 그리고 가장正確하게 批判함으로서의 甲이乙만큼 놉지못하거나의 批較的斷案도 나탈수야잇슬것이다、그러나 더퍽노코그저漠然하게『나는 이作家를 알며말한두분보다놉다 고본다』는것은實로 君의淺薄한 그리고 沒常識한

幼稚 를如實히暴露한것밧게는 다른아모것도안이다

다음으로 君은다시 新春文藝懸賞作品을 評하는데잇서서 또한 그와마찬가지의 無識을餘地업시暴露하엿스니 金裕貞氏의『소낙비』를 評하는데잇서서도『소낙비』는조금도評하지안코 金裕貞의 履歷을 紹介하엿다 그야 評家가 그作家의 作品을讀者에게 眞實히鑑賞식히기爲한

薰園 에서나온 履歷의紹介엿다면 別로큰問題꺼리가되지 안앗것이지만

『—이분은 내가일찍부터 아는분이요』

『이번의 이作品이 그의處女作이안입니다』

하엿다

作品評이면 그作家의 作品을 가지고評할일이지 自己와일속부터알고 몰으는것을 밝힐必要가 어듸에잇스며—또그러니 어떠탄말인지? 그리고 그作品이處女作이든 아니든 구태여『몃해전에『新女性』인가『第一線』인가?에佳作을

發表 하엿다』고하야 옛날이야기를 끄[illegible]인가?

『나는 三年前에 某新聞紙上에 [illegible]의作品을 자랑하엿다』는言何는『소낙비』를評하는 이자리에 잇서何等의 無價値한無關係한雜何이외에는다른 別것이아니엿다 實로우리는 拘腹絕倒할 다음 가튼言辭를 도차저낼수잇섯스니 그것은批評해야할『소낙비』에잇서서『—『소낙비』는내가 不幸하게도 넘어보지못하엿다——』한것이엿다。

대체 君은 作品을評하는데잇서 그作品을 넘시도안코 評부터 먼저한다는 實로怪奇한

世界 文壇을 통털어노코도 차저볼수업는秘傳을 누구에게서 繼承한것인가?

…옛宮闕에봄이드니…

朝鮮音樂史上 劃時期的壯擧
全朝鮮音樂懸賞競演會

開催時日 今年九月中(申請期限 不日發表)
種目 피아노、바이올린、聲樂(男女兩部)
參加資格 全朝鮮一般男女로하되聲樂에는滿十五歲以上
曲目 二曲을演奏하되一曲은本會에서指定한三曲中一曲을取하고一曲은隨意로함
表彰 콩쿨出演者에게對하야는 콩쿨參加紀念章을贈與하고 콩쿨에選拔된第一位及第二位에對하야委員會로부터 콩쿨賞을贈與함

主催 朝鮮日報社 後援 朝鮮音樂家協會

★詳細追後發表

學藝

쿵……★……드

빰마즌記錄 (下)

黃載健

『이십전만 마저 채워주시유 이놈은것이……』

영감은 한번더얼려보다가

『월 기냥 가저오시요』하는부인의말에 못이기는듯이 딸아갓다。

영감은 물당올한 개와진까지 가서 짐을 부려노코는 한번한숨을내쉬엇다 일원이십전을 꽤긴것은 안타까우나 그나마바든것이 다행이다。

그러나 그부인이 내다주는돈은 오십전짜리한혼에 십전짜리세푼박게업다。영감은 귀가 막히어 한참어리둥절하얏다。

『이게 무어요』

영감이 돈을도로내밀며 소리를지르니

『나무갑이지 무에 무어야』

그부인도 핵소리를지른다。이원팔십전이라커니 호팔십전이라커니 한참 말다툼하는데 집안에서 양복쟁이가 나오더니만 부인에게 물엇다。

『왜 무슨일이야?』

『이거봐요 팔십전에 이나무를 내저왓는데요 인제와서 이원터가래요』

『안입니다 이걸누가 팔십전에 팝니까』영감은 그래도 양복쟁이가 동정해서 이원은 다-안주더라도 멧푼더줄것을 바라고 입만처다 보앗다。

『팔십전이랫다는데 무슨 잔소리야 부인네라고 속이려덤빈담』

양복쟁이는 영감의뺨을갈기며 미려서 문밧그로쫏고 대문을장궈버렷다

『존놈이 더흥하거든……』

문안에서는 양복쟁이가말하는데 그주인이깔깔웃는다 영감은 한참동안 빰을만지고 섯섯다。중입면빰에다가 단한번이나마 모질게맛고보니 눈압시아펏다 그러나 이제는 양복쟁이소리도 부인의 우숨소리도다 들리지안코 엽집에서 어린애들이 눈물고 떠드는소리만이들린다 자긔를기다리고잇슬 쇠똥이놈이불연듯가이업서 소구루를고거를울떼기시작하얏다

讀書問議

朝鮮歷史를 공부하자면

【問】現代歷史家로서가장正確하게著作하야노흔朝鮮歷史가잇슴니까? 또朝鮮歷史를研究하려면 어떤册을어떤順序로보아야합니까?

【答】正確하다는그말은 여러가지의意味와여러層의程度로解釋되야 대답하기석거북합니다。何如튼年代學的正確性 考證學的正確性도 百에百을保障할著書가 잇슬지疑問이온데 더구나歷史學的正確性에이르려는아즉하나도업다고보아야합니다。그러대在來史乘에는 三國史記 三國遺事、東國通鑑、東史綱目 高麗史와또는中國文獻에적히어 잇는記事를모아거맨는 海東繹史等이잇고 現代史家의著書에는三國史東夷列傳의 校正과가튼名論文을비롯하야 前後三韓考 平壤次化考等 그獨特의解釋을나린 여러篇의論文을모아노흔申丹齋의朝鮮史研究草 崔六堂의 朝鮮歷史와兒時朝鮮、새로운方法으로서 古代朝鮮의社會經濟的機構를 闡明하려한 白南雲 敎授의 朝鮮社會經濟史(東京改造社出版)等이잇습니다。그以外에도總督府로부터出版된 朝鮮史講座 朝鮮史大系가잇고 今西龍氏의新羅史研究와百濟史研究가잇습니다。엇던책을엇던順序로보시라고말슴할수는업습니다。그리고그런册은 京城에는信用할만한 書舖을단골로定하시고 自己書店에업는것이라도 좀어더보내도록말슴하시면 될줄압니다。

三堂九族은 어떠한意義

【問】三黨九族의意義는 무엇입니까 (金英一)

【答】三黨은(父의族、母의族、妻의族)을指稱하는것이요 九族은 여러가지解釋이잇스나 우으로高祖까지四代 아래로玄孫까지四代 그리고自己의녀섯것이란말이 第一有力하게쓰이고잇습니다

古代朝鮮에도 初夜權이잇소

【問】우리朝鮮에도 初夜權이잇섯습니까?(金英一)

【答】아즉잇섯다고할歷史的證據를發見치못하얏습니다。

英國의文豪들의 遺產比較는이럿타

써·아ー서피네로에게는 六萬三千磅遺產이 잇섯다 데일리·텔레그라프는 文士의 遺產相續稅는 國庫를 潤澤하지못하게한다고말햇지만그게참말이다、그리하야文豪의遺產을調査해보면 리톤·스트라치(八千磅) 桂冠詩人로버ー트·브리치(六千磅)D·H·로ー렌스(二千五百磅)財產을가진이는 써·홀·케인(二十五萬磅) 써·W·S·길버ー트(十一萬磅) 스탄리ー·웨이맨(十一萬磅) 디켓즈(九萬三千磅)하디(九萬一千磅)골스워ー듸(八萬八千磅)比較的 적은이로 써·아ー서·크난도일(三萬磅) 아ー놀드·벤네트(四萬磅) W·T·헤(二萬四千磅)

漢詩募集

題 「春風」
押 知
限 三月十日

漢

碧梧山人考選

春雪 【選外四】

韓秉璉

臘雪初過又立春
山城物色轉生新
纔爲着地便消易
弱不禁風各散頻
寒入窓梅占大魁
霏從岸柳泥輕塵
瓊林玉樹紛紛路
遍踏行人疑月晨

隨想 歸鄉 ③

李源朝

勿論、지금 우리네가부르는이『懊惱』라는 말가운데는 일직이 그 텔렐리이論은바와갓치 깨여진 사랑에 눈물짓는 그것은아니라고 하드래도 오히려 이말가운데는 우리네 自身의 無力한것을 덜허보려는 口實의要素가 多少間이라도 석겨잇다는것을 나는안다。

그러나 이 懊惱라는말가운데서 우리네의 無力한口實의要素를 마지막한조각의그림자까지追放해버리자、그러한단들 果然 우리에게는 懊惱라는것이 업서질것인가?

요사이 나와갓치 도라갈날이 멀지안흔메에처구들이 종종 나를차저와서 火炬를에워싸고 서로주고밧는말은 역시 故鄉으로 도라가는사람의 새삼스러운煩惱이고 懊惱이라고한다。대체로우리네故鄉에는 누가무슨씨를뿌리고갓기에 거긔에 열매맷는것은 懊惱이고 煩悶뿐인가?

흔히 戀愛는煩悶의象徵이라는 말을듯는것과갓치 사랑이 懊惱와 煩悶을가진다는것은 무엇을 사랑하는때문일는지도 모를것이다。그럿타면 故鄉으로도라가는 우리가 이럿듯이 懊惱와 煩悶을 가진다는것은 우리가 故鄉을 사랑할줄안다는것이아닐가?

그러나 첫사랑의 愛人과갓치 사랑하는 故鄉으로 도라가는우리가 그愛人에게 밧칠선물은무엇인가? 가령 우리에게 끔게끔게 간직여가는 사랑의선물이 잇다고할들 우리는 어느길로순속 어느좁은길가에서 남의눈과 여가며 가만이 그서름을 밧서낼것인가?

우리는 실로 必然性이라것을 일허버린 백성인것이다 그럼으로 우리에게 엇던한抱負가잇고 情熱이잇고、誠意가잇다고하드래도 우리에게는 반드시、그런것들의 必然的인結果로서의 報酬가 오는것이아니라。다만 可能한條件이란 偶然性만이 放蕩과갓치 錯綜한가운데 우리는 무심한네人뵘도치와갓치 뛰여듬따름인것이다。그럼으로 現代의人間測定標準이 한스乘捕捉하는에스프리의우에 노혀저 잇다는것은 決코 無理한것이 안인것이다。보라 지금에 세워지는 모뉴멘트가 偶然性의 化石이아닌것이 몃치나되며 市巷에淪落한 無數한 룸펜이必然論의 犧牲者가 아이니가엣치나되느냐?

그럼으로 우리네의故鄉을사랑하는마음으로 맛치 짝사랑을하는사람의 괴로움과갓치 그 보드라운손목을 만저보지도 못하고 맑은눈동자를 바라보지못하거마는 어느지나가는 길가에서라도만나보려니하는 은근한期待와갓흔것이다。그럿키에 懊惱밧게가지고갈것이 업는나이건마는 도라갈날이 갓가워올사록 도라갈마음이 더욱焦燥한게지。

오— 懊惱에채인 나의故鄉을 사랑하는마음이여!

오늘의智識

氣象의變化 【四】
生活上必要한이常識

元來空氣와 밋다른瓦斯體들은 急히膨脹하게될때 突然히차진다는特別한 性質을 가지고잇다위선空氣도零下 百九十二度까지冷却해버리면 液體가되야버린다。그런데地面上의 空氣는 더워짐에딸아上昇하다가 空氣稀薄한上空에이르러는드듸어 膨脹되고膨脹에딸아冷却되는 바람에다시水蒸氣의凝結이 일어나는것이다。구름은 실상그와가티 생긴것으로좀더그 冷却作用이 急한곳에 비가된다。

九、바람

空氣의 流動을 바람이라고하고바람이불어 오는方向을風向이라고하는데風向은 普通十六方位라고해서 方位를 十六으로난호아觀測한다。即北北東、北東、東北東、東、東南東、南東、南南東 南、南南西、南西、西南西、西、西北西、北西、北北西等이다。바람에는 速力이잇는데 그것을七階段에난호아말한다。一秒의速力을 標準하고 一、四米까지는 靜穩狀態요 一、五米에三、四米는 軟風이요 三、五米에서 五、九米는 和風이요 六、〇米에서 九、九米는 疾風이요 一〇、〇米에서一四、九米는强風이요 一五、〇米에서 二八、九米는 烈風이요 二九、〇米以上은 颶風이다。靜穩狀態에는 연기가 곳게올라가고 軟風에는 바람과가는잇고 和風에 나무입사귀가흔들리고 疾風에는 나무의적은가지가 흔들리고 强風에는 나무의 큰가지가 흔들리고 烈風에는나무의 원몸이움즉이고 颶風에는나무가 뽑히고집이 문허진다。昨年에 大阪을襲擊하야 關西一帶를 擁襲하얏든 暴風은곳 颶風이다。

新興의 二千火田民 國有林拂下를 陳情
二日一食이나 먹게하여달라고
住民代表咸南道에呼訴

【咸興】신흥군동상면광대리제오구(新興郡東上面廣大里)주민대표 리순신(李舜信) 최도룡(崔道龍) 리원숙(李元淑)외 이백이십명은 려서로 지난일일함남도청에 국유림불하진정서를 제출하엿는데 이제그진정서에 나타난비절참절한사정을 보면 전긔광대리제오구는 소화삼년 동장진수전회사의공사때에 전선각지에서로동을종사하려고 유집한사람들인데 해공사가 준공된다음부터는 흩어지도할수업고 겸하야 토착할여유가 업고 로비를저축할여유가 업섯슴으로 솜가루하여 떠날려고 하여도 가지도 못하게되엿슴으로 할수업시 머물너서화전을 경작하여겨우 연명하여오는 호수가 삼백여호에 주민이 이천삼백여명에 달하고잇는데 작년과재작년마가튼 흉년대흉작으로인하야주식물인연맥(燕麥)등으로수확이라고거이전무하여 초가을부터춘궁로 초근목피로이어오다가 그도끈어진지가 이미오래게되여 지금이야말로 굶어죽을수밧게업는 위경에직면하고잇는데 다행히 부근국유림(國有林)구내 국유림(國有林)을 매각한다는설이 잇서 목재상들이 운동하고잇다함으로 이왕이면 동가격으로자긔들에게 불하하여주면 조재(造材)하여다시 매각하여서 이일일식이나 니어나가겟다고하는것이다

東拓白山農場에 某不正事實綻露?
事件은農事改良組合中心으로
現、舊幹部拘引取調中

【扶安】근일부안경찰서 전전서장(田田署長)동사법계주임 석천경부보(司法係主任石川警部補)는 부안주재소에 진졸출장하야 부안주재소수석안배경부보(安倍警部補)와 구수밀의를 거듭하드니 동면백산동척농장서기리모(白山東拓農場書記李某)와 동농장전서기 오모(吳某)를인치 취조하다가 지난이십팔일에 일단석방하고 동일밤에 백산으로 자동차를 모라 질풍적으로 좌기제씨를 검거하야 부안주재소에서 연일하야 엄중취조하든니 삼월일일석양에 석천경부보일행은 다시백산동척농장에 출장하야 도모를취조하엿는데 이가티경찰의긴장한활동을 보건대 엇던중대한일이 생긴듯하나 경찰측에는 절대비밀에부침으로 자세히알수업스나 탐문한바에 의하면 동척백산농장에서 소화원년에 소작인의상호부조를 목적으로 농사개량조합이란 단체를조직하야 매년일인에 십원식거출저축하야 현재에는그재산이 차만원가량이나되며 회원은 사백여인이나되는데 그동안조합에는 가진말썽이 만엇스며 한때는 어떠한말성이 생기여 간부를개선하는등하야 겨우 부흥을시킨일도잇다한다 그런데 이즈음금작히 경찰의손이밋친것을보건대 조합문서를 압수하며 중요간부를인치 취조함을보면 동조합에 그엇던중대한 부정사실이 탄로된모양이라하며 전간부도는현간부중엇사람만이 취조됨을보면 사건의내용은 가히 추측할수잇는 것으로일반은그귀결을 주목하고잇다한다 이제피검된 간부는 아래와갓다

金完植(第一區組合長) 景成淑(第二區組合長) 辛淇東(一區副組合長) 鄭陵模(二區副組合長) 金其煥(一區幹事) 李基英(一區幹事) 菊池某(一區監事) 鄭李模(一區監事)

金乃翰 李寬福 金泳德 田禮俊 崔昌增 李鍾埔 金商洛 吳市錫 公文一以上各二圓 崔栗柔十圓 金允球 李昌國以上一圓五十錢式 朴鳳瑞 金鳳濟以上各十圓式 林山龍一圓六十錢 以下二十九人各一圓式 外十人

六圓八十錢 崔光祚二圓 合計百六十八圓五十錢 殷興十二人 劉某二十三과

千餘組員配當分을 教育費에提供해
鰲山金組員의教育熱

【會寧】회녕읍내에잇는오산금융조합(鰲山金融組合)은동촌읍본위로창설되여설치된 조합으로서 동조합원일천팔백여명은소화구년도총회결산에 배당에사십전식 리익배당되는금액사백사십여원을한푼도찻지안이하고 자긔의자녀들을 위하야 교육비로 사용하기로 결정하엿다는데 그의내용을들어보면 회녕시외각면에 설치된간이학교는 사립적으로되기때문에 그학교에서 졸업하여가지고는상급학교에입학하기가 도저히불능하니 학부형측 우리조합원 일동은동조합에서 배당되는 금액매명사십전식을 누구나 차저갈것업시 그돈으로 긔본삼아가지고 회녕향교(會寧鄕校)에 강습소를 설치하든지 또는보통학교당국과협의하여보통학교에다편입학급을 더연장식히던지하여 외촌에서 사변제중에한학생을 수용케하여 보통학교를부터동조합에서 배당되는금액도입게 찻지안하고자녀의 교육비로보충하기로결정하엿다는 바이사업에 밝근한제씨는신화리 물안두고 준비에 분망중이라한다

窮民救濟金逐至

【寧邊】평북녕변군서면(西面)에서는궁민구조코저면사무소에서 구제금을 모집하고잇든바지난 이십팔일까지 모집된금액과씨명은 다음과갓다고한다

表尙鉉三圓五十錢 金元讃十五圓 崔潤模 李根祐 李寶洙 朴日鉉 白雲峰各五圓式 李光業八圓 金泳鎬四圓 李尙杜三圓五十錢 崔觀玉 崔景模 禁酒靑年團 崔炳祚 朴聖律 李貞祥各三圓式

總費百七十萬圓의 大同江改修工事
十年度割當四十萬餘圓

【平壤】대동강개수비명십년도할당은 사십만오천팔백원으로 십일년이후칠종년까지 십일년도 사십만오천팔백원, 십이년도이십오만삼천팔백원, 십삼년도이십만오천원, 이상합계 백칠십만원, 십개년계속사업의예정으로공사에착수햇는바그후륙십여만원을증가하여 총액 이백사십만원으로 개정하는 동시에계속년도도 삼개년을 연장하야십삼년까지로되엿다 또한과거구개년간의 지출비는 백십삼만원정도이엿섯스나십년도부터사개년간의경비는 과거구개년보다는 도리어 대액인바 십년도 십일년의 량년은 매년 사십만여원식을 할당하게하는 변도할보다가장 다액인바 이공사는주요로남곳면 원암일원 공사(南串面猿岩閣工事)로 금년랑변중 에는대체로 주요공사를 맛칠예정이라한다

城川江을먹겟다고 咸南利權家總動員
廢川敷地五百萬坪에침삼키며
貸附願三萬三千突破

【咸興】소화이년도부터재이차구궁(救窮)사업으로 공사를 시작한 성천강치수공사는금년칠월준공을하게되는바 이치수공사로 인하여페천이되는하천부지는사백오십만평가량되다는데 이거대한 페천부지를싸고돌면서그대부운동을하로맹렬한암중활약을하는 리권가(利權家)는 재작년부터수천명에 달하고잇다하며 이월말까지 함남도청에제출된대부원서만도이마삼천건이나되다는데 금후당국에서 어떠한방법으로누구에게대부할는지 극히 흥미를끌고잇다한다

惠山婦人會組織

【惠山】한남혜산진가정부인들은 지난이월 십팔일오후한시 부터시내제사구진흥회사무소에 회합 하야혜산부인회 창립총회를 의장진규(陳奎)씨의사회로 개최하야 동회를조직한후 좌기간부를 선거하얏다고한다

▲會長 陳奎 ▲副會長 朴錫實 ▲書記朱春玉各部任員(略)

伊川敎會大傳道

【伊川】강원도 이천군읍내 감리교회에서는 지난달이십륙일밤부터 금월사일까지 선교오십주년긔념 대전도회와 부흥회를개최하고 리석원목사를청격하야 매일밤강연회를 개최하야 성황을이루웟다고 한다

廢人된子息爲해 慰藉五百圓請求
"不應하면誓死抗爭"

【長津】장진강수전공사에품파리자들이 집중하야작업하든중 본적을황해도봉산군 구연면 관대리(黃海道鳳山郡龜淵面舘大里)에둔 박치문(朴致文)(二七)은동공사에 가족오륙명의생활을그날그날지속하여가는몸으로 작년팔월이십일장진강 수전회사 제이수장(長津江水電會社第二堰坑)에와서 임금일원이십전식밧고 함내에 들어가서 작업하던중난데업는 다이나마이트가 폭발되며 오른편눈과오른편다리에 중상을밧고 당지하갈의원(下碣醫院)에 입원하야 우금륙칠개월을 치료에 신고하얏스나 눈은보지못하게되고 다리는 그만짤너버리엿스므로 이제는 품을 팔아서 일가족을 살닐수도업스러니와 자긔한몸도 이어갈수업다하야 수전회사에 위자료시삼백원간에 해당한것을 청구햇스나회사에서주지안흠으로 생활할수업는 극히 어려운금액으로

朝聞道면 夕死라도可也
十餘名六十老母가 每夜로、가갸거겨、
東星學校에핀美談

【平壤】배화야 알고알어야산다는 표어 미테서 평남가지에는지금까지 가갸거겨를 못보든 사람에 무산아동의 교양을목적하든 동성학원(東星學院)이 평양 비민가에 창립되여 이래이백여명의 무산아동을 수용하고 주야이부에난호아 교육하여 큰성적을보하고잇고 작년칠월부터는 부인강습(婦人講習)을 새로히 개시한후 가정주부들의문맹타파에맹진중이든바 최근에는 소경이엇을하다는 노모(老母)들의 십여명이 강습에가담하여 매일밤마다 열심으로 공부하고잇다한다

孝婦鄭氏

【洪城】홍성군서부면 양곡리(西部面陽谷里)에거주하는 류병우(柳秉禹)씨의안해되는 박씨(朴氏)가 오래동안포병하여 생명이 위독하게되엿스나 가빈한관계상의약을 마음과 가티쓰지못하고잇든중 그의자부정씨(子婦鄭氏)(二八)는 단지를하여 피를입에 흘려넣어 다행이효험을보게되여 완인이되엿슴으로 부근인사들은 그의출천한 효에찬성함을 마지아니한다고한다

一魚濁水의禍
一人의借地料不納으로
百餘農民이恐慌

【營口】영구현로보(土窩)사천황(四天荒)방면에는 농가 이십여호에 백여명이 거주하는 농장인데경작지백여일경을 마주국인 지주들에게 거절당하고 박금출경기에갈비를 모르고 떠나게되여지주에게 애걸을 하노니 민회에호소를 하는니 큰문제가 되엿다는테민회출장원의 보고에의하면 조의선(趙義善)이란자가 차지료(借地料)벼이십여섬 현가삼백여원을 떼여먹엇슴으로 지주들은 신용업는조선농민에게는 토지를 묵일지언정 빌려줄수업다하야 일반은 그와가티 몹안에 빠지것다는데그영향이 다른지방에까지미처서토지운동에 적지안흔악영향을준다고한다

沙里院法院支廳 新廳舍位置決定

【沙里院】사리원지청청사위치문제를 중심으로 유치(誘致)운동이 맹렬하게 연출되여 시민의만흔주목을 긔고 잇다함은 이미본보에 보도하엿거니와 지난이십팔일 긔성위원회를 유치사무소에서 열고 청사위치를 진남포청목(靑木)씨의소유토지인 구천리(駒泉里)로결정하야 문제의단락을 지엇든테부지로 사용할 상천구십륙평은 무상기증을한다하며 공사는 일만이천원의예산으로 오는 팔월중에 착수하게되리라고한다

作權일코子息죽어 多率食口에살길업는老農
法院에小作調停申請

업친데덥치기

【咸興】삼십여년동안소작으로 팔식구의 생계를이여 오든것이 아무리유도업시 돌연경작지 전부의소작권을 박탈당하고 엇지할줄을몰으고잇든 우에설상가상으로 전염병의침회를바다 제일큰아들과 며누리를일케되는 비절참절한경우에잇스나 그설움을호소할곳조차업다고하면서 이얍본보함흥지국에와서 눈물을먹으며 호소한 로농(老農)이잇스니 이제그내용을들으면 이가련한늙은이는 함주군상조양면중평리(上朝陽面中坪里)에사는 주만렬(朱晩烈)이란로인으로 약삼십여년전부터 지주문형숙(文衡淑)의 토지를 소작하여서 여덟명식구를호구하여오든바 작년추수후에돌연 아무런리유업시(부당한전부납입) 경작지전부의소작권을 박탈하라는 주상가튼명령이내리엿슴으로 로팔명식구의호구책이 전연업게된 주만열은 수차지주에게 가서 애걸하여도 보앗스나 종시듯지안이함으로 할수업시 일가족이각각리산하여 류리걸식이나 할수바게업다고 비절한결심을 가지게되엿는데 그래도문지주에게도 인정이잇스리라고하든 일루의희망을 가지고 이제까지지내왓는바 운명의작란은 더욱그에게 불행을다치게하엿스니 금년 이월초순부터 무서운 장질부사의침범을바다 일가족이 일시에누어 신음하다가 스물한살된 차자와 이십륙세된 며누리가 일시에 죽게되엿다고하는데 거듭닥치오는 긔맥한 불행에 로인주만열은 정신을 일은사람모양으로 눈물만 흘니며 겨우말을이여가는 참절한정상은 보는사람으로하여금 눈물을 금치못하게하엿스며 주만열은 즉일로함흥법원에 소작조정을신청하엿다한다

禁酒代로造林 製炭하야報債
模範할勤儉

【伊川】강원도이천군산내면상하리(山內面上下里) 리병재(李秉才)씨는항상리민의복리증진을 위하야 각방면으로 만흔활동을하야 오년전에 리내십오명이금주회를조직하고 음주로서업서지는돈을저축하야 산림록정보를 사서락엽송일만오천주를심어서지금은울룡한산림이되엿고 매년동촌피페로서허덕어리는 이때에 리병재씨의주선으로 작년중에 제탄을하야 칠백오십원을갑하다고하며 현재리민들이 공동저금한것이삼백오십일원에달함으로 피페된농촌에 실로생활상 한시칭 이도엿다고 리민들의 촉망이만라고한다

鐵山郡面廢合
四面을二面으로

【鐵山】지난삼월일일부터철산군내외사개면을 폐합하야 이개면으로되엿는바 축백양면은운산면(雲山面)을폐합하여 백양면이라정하고 운산면면사무소에서 사무를보게되엿스며 정혜면부서면(丁惠面扶西面)을폐합하여 부서면이라칭하고 전정혜면면사무소에서사무를보게되엿다 원래전긔사개면은 산간지대가안이면 대부분이해변에 리하엿스나 해업에해산물이업서서 면민들은 일상생활이 쭉축치노하야 궁핍한동중 금번면폐합을 실시하여 다소면비부담이 감소되리라고 하며 구백양면지까는 오배표준가격이든것을 상배표준으로인하케되엿다고한다

三百圓價土地를 楚山敎會에寄附

【楚山】평북초산읍내예수교회 례배당을새로건축한다는말을들은 벽동에사는 일기선(任基善)씨는 자진하야 예배당신건축에 조금이라도보태라고 시가삼백원가량의 토지를 초산교회에 긔부하엿다고 한다

簡易校設置運動
伊川郡山內面에서
三個里民이結束

【伊川】강원도 이천군산내면(山內面)에서는 종포 추동 개려싱게리 민들이 결속하야 산내면동포리에 간이학교를 금번설치되도록 각방면으로만반준비를다하고 교사의긔부까지도 다되엿슴으로 불원 도학무과와 이전군수에게 간이학교설치를 위하야 조속설치를 진정서를제출하엿다고한다

公文書僞造團 木村等을逮捕

【義州】지난일월 정도령 일본단면인의 공모위조단을 검거하야 그방금 엄중한취조를 하고 잇는중인데 그들은 일본내지 목촌(木村)모를수범으로한 일당의 흥업회명이 대구경찰서(大邱)통)공인(公印)과 서장공인을위조하야 여러가지 공문서를 위조하야가지고 일본내지로 팔어먹든것이라는데 그의전긔적상 이폭로되리라한다

咸南道會開催
來十六日부터

함남도 도회는오는 십륙일부터칠일간 개회하기로결정되엿는데 의안은 예산등삼십팔건으로 일할정식으로통과되엿다

地方人事

▲劉景根氏(江華高麗期成準備委員長) 去一日準備委員會催開人事次本報江華支局來訪

봄거리에좀도적
가지가지의재간

【平壤】봄거리에는좀도적이횡행하여 일반의신경을 예민케한다

◇ 평양부내 류정(柳町)팝집 사번지 전과일범 조준섭(趙俊燮)(二八)외세명은 일전이되며 평양부내각처를 배회하고잇는것을 평양서원이 인치취조한결과 이월이십사일 백주에 삼중정(三中井)배회적엘레베터폭에서 부내선교리(船橋里)산긔(山崎)라는 사람의회중에들어잇는 구십여원의 현금을절취분배하여가지고 기생(妓生)을 상대로유흥하엿고 그후 선천군심천면(宣川郡深川面)김익현(金益鉉)의돈삼십원을 절취하여 역시기생의유흥비에 소비한것을 자백햇는데 여죄가 만흔모양이어서 계속취조중이라하며

◇ 평양부내 류정(柳町)배덕생(裵德生)(一七)은 아직어린아이이나 스리명수로 이월십일 멀리경성에출장하여 본정삼월(三越)부근에서 어떠한 통행인의 주머니속에 들어잇는 현금이십칠원을 절취한것을 필두로 평양부내에서도 전후팔회나 스리를 한것이 발각되엿다

◇ 철선전문의절도ㅣ평양부내서성리(西城里)전과일범 김룡선(金龍成)(二二)은 금년일월이십칠일 오후여섯시경에 평양역구내에 침입하여 시가철원의 철선(鐵線)을 절취한것을필두로 이곳저곳에서 철선만 전문으로 주인의 승락업시 가저오다가 일바평양서에 체포되엿다한다

◇ 상일세머리를 도일혓스므로 범인을수사중이든바 대동군서천면인흥리(西川面仁興里) 김승호(金承浩)(二一)가 수상한행색으로 닭거취조한결과 사실을 자백햇다

(高級大)十四金ペン(選賞付イリジューム付) 高級エボナイト軸(鍍クローム二重輪入・安全インキ止式 クロームクリップ付・新案スポイト付) (市價二圓ノ品) 特別元價只の七十錢 【品質三年保證】
アーロイ高級萬年筆 第三回 限萬本 景品附特賣 新製宣傳景品 大サービス
東京市宮園通三丁目 製造元 鈴木合名會社 振替東京九九八六番

鳥捕網
極上絹絲製
高六尺長二間 二圓
同 三間 三圓
同 五間 五圓
京城府明治町一丁目派出所前
漁釣具 御商 秋岡商會
電話本局二三九〇番 振替京城一二五六番
定價表進呈

創立明治參拾貳年 倉庫業兼營
株式會社 朝鮮商業銀行
京城府南大門通二丁目百十一番地
頭取 朴榮喆
專務取締役 堀正一
支店 京城南大門通、同鐘路、同東大門、同本町二丁目、同本町四丁目、龍山、仁川、平壤、利川、清州、群山、全州、裡里、長興、康津、釜山、元山、永興、咸興、端川、淸津、羅南、會寧、沙里院、信川、新義州、定州、平壤、同大同門、鎭南浦、載寧
出張所

●感嘆!! 感嘆!! 정말頭痛에써조흔 ノーシン(노신)이다●

◆三月三日낫브터三日間大公開
陽春劈頭巨璽堂堂君臨!!
日曜、祝日祭日은晝夜三回興行
始映時間十二時、三時半、七時半
◎新興키네마社提供
大衆映畵社製作超特作時代劇
時代劇 日の丸若衆 全十二卷
監督 後藤岱山氏
主演 歌川絹枝孃 尾上菊太郞氏
때는慶應三年ㅣ薩長을急先鋒으로擡頭한新興勢力은尊王討幕의喚聲이놉핫슬때……明治維新期를舞臺삼아일어나는肉彈血飛되는痛快亂鬪篇이다
◎파라마운트社超特作無聲版
조셉폰、스탄바ㅣ그氏監督
探偵大活劇 非常線 全八卷
조ㅣ지·방크롭트 氏 主演
올니암·포ㅣ엘 氏 쎄티·컴프슨 孃
방크롭트氏出世作『暗黑街』와갓든監督、主演者로製作된暗黑街를背景삼은痛快無比한探偵活劇!!快男兒방크롭트氏畢生의大傑作品!!
大衆料金附上十五錢階下十錢均一!!
鍾路五丁目 電光一七五五 第一劇場

◎藝苑座第三週프로◎
(自三月三日부터 至三月七日까지)
一、喜歌劇 結婚費八百弗 全員總出演 藝苑좌쓰밴드
二、間奏樂
三、合唱 青春讚美 新進歌手出演
四、獨唱 李正順 林愛敏 康福淑 李春雨 全時淑 金春雨 李貞淑 尹金防
五、스켓취 꼬맹이사랑 은별가치쏘아요
六、梁山道 바이오린獨奏 李福本 康福淑
七、間奏樂 張月水
八、단쓰 愛 林生寶 金蓮寶
九、漫談 푸시사헌이야기 金肇盛
十、喜歌劇 海水浴場風景 全員總出演
開幕時間 낫은午後一時·밤은七時三十分
仁寺洞 電光三〇二 朝鮮劇場 定刻開演

經濟解說 "米穀自治管理" 朝鮮에 미칠 影響 (3)

申泰翊

米穀自治管理가 果然 政府의 議會提案한대로 決定되면 朝鮮에 밋칠 實際的 影響이 어떠할가함에 對하야 먼저 米生產者方面으로부터 보기로 한다 오늘에 잇서서 米穀自治管理法案을 보게까지 이른 根本的 原因이 米價暴落을 막자는데 잇고 이와가티 米價暴落을 막으려는 것은 그로 因한 農家經濟에 주는 打擊이 甚大한 때문이다 그럼으로 米穀自治管理의 目標가 米價의 低下 卽 그中에 잇서도 豐作年과 가튼 大豐作을 보게되는 境遇에는 米價大暴落을 招致케될 危險이 만흔마큼 이것을 막음에 完한 根本的 對策을 이번에 準備하여 노흐라는 것이 아마도 그의 重要點이라고 말할 수 잇다 이러한 目的을 가진 米穀自治管理가 實施되면 米生產者는 從來와 가튼 不安이 어느 程度까지 除去케될 有利한 點이 잇다고 보는 것이 當然할 듯하다 다시 말하면 오늘까지 米價의 騰落이 激甚하여왓고 더구나 最近의 過去에 잇서서 거의 恒常 米價暴落으로 因한 그 生產者의 打擊이 相當하여 오든 것이 米穀自治管理가 되면 어느 程度까지 米價의 安定을 보게될 것이라는 點에 잇서서 生產者로서는 歡迎할 바이라고 말할 수 잇다

×

그러나 以上은 米穀自治管理에 對하야 漠然히 考察한 것에 不過하고 實際에 朝鮮內 生產者에 밋칠 影響에 잇서서는 特殊的 見解를 안가질 수 업는 事情이 잇다 이것을 다시 말하면 앗가 [illegible] 制度의 暴落으로 걱정하든 것이 米穀自治管理가 되면 그와 가튼 暴落을 못나리게 하도록 未然의 防止策을 베풀게 되는다고 하는 點에 잇서서 朝鮮內의 米生產者에게도 有利한 影響을 줄 것이라고 할 것에 不過하다 그러치만 朝鮮의 米穀事情은 日本內地와 同一視할 수 업는 點이 잇다 卽 前節에서도 말한바와 가티 日本內地에서 消費되고 말어오는 쌀을 亦是 日本內地에 限한 時間的 統制를 하라는 것이나 朝鮮米는 朝鮮內에서 消費되여 오는 것보다 移出數量이 그 半以上을 占하는 이때에 잇서 米穀自治管理가 되면 그 [illegible]

米穀의 過剩米는 한거름도 從來와 가튼 移出을 못하게 되고 말하서 朝鮮米는 時間的 抑制뿐만 아니라 產額圈의 地域的 統制의 拘束을 보는 結果가 될것이다 그럼으로 米穀自治管理에 對하야 日本內地의 米穀生產者가 有利할 것으로 보다 고해서 漠然히 朝鮮內의 米生產者도 有利케될 것으로 밋는다는 것은 좀 생각할 일이 아닌가 한다

×

그러데 米生產者란 누구이냐 하면 첫재로 農民을 들것이다 그러치만 이곳에서 生產者다 고할 때에는 農民外에 大地主도 包含되어 잇다 그뿐만 아니라 米穀自治管理가 朝鮮의 生產者에게도 有利케 되리다고 하면 이것은 農民이 아니라 거의 그 全部가 大地主에게로 도라가는 것이 아닐가 생각한다 왜 그러냐하면 朝鮮農民은 實際에 잇서서 貯藏할 餘裕가 업는 사람이 거의 全部로 秋收하면 그 當場에 쌀은 農民의 손을 떠나지 안흘 수 업는 實情에 잇다 그럼으로 朝鮮農民은 過剩米統制의 準備라도 그것을 貯藏할만한 米穀이 手中에 업다 다시 말하면 過剩米統制의 配定에 參加케될 資格이 잇는 사람의 數가 稀無하다고 볼수 잇다 一面으로 朝鮮農民은 自己손으로 쌀을 產出하는 境遇에 잇스면서도 때에 딸허서는 쌀을 먹지 못하고 그 代用食糧을 사지 안흘수가 업는 消費者의 處地도 잇게 되는 마큼 米穀自治管理로 因한 消費者의 不利의 影響까지 밧게 되지 안흘가 하는 見解도 가질수 잇다 그런데 大地主는 以上에서도 말한 바와 다르 그들은 秋收한 쌀을 어느 時期까지 貯藏할 餘力이 잇는 마큼 米穀自治管理가 果然 米價暴落의 防止에 그 主點이 잇서서 生產者에게 有利한 結果가 되다고 하면 그 大地主層에 끄칠 것 갓다 그러나 實際에 잇서서 大地主層에 米穀自治管理의 利益이 잇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日本內地의 米穀自治管理의 結果가 大地主層에 有利한 影響을 밋치게 할 것이라고 하면 朝鮮에서도 生產者에게 有利한 影響을 줄것이라 할 點이 잇다 왜 그러냐하면 前에서 말한바와 가티 朝鮮米에 對한 自治管理는 移出치 안흘 수 업는 朝鮮經濟의 實情이 日本內地와 그 事情이 相異한 點을 생각지 안흘수가 업다 卽 朝鮮은 日本內地와 가티 經濟的 過剩米統制에 있서서 配定比率로 强制貯藏케 될 것인 것을 어느 時期까지 抑制케 되고 더구나 不公平한 過剩米統制의 配定比率로 强制貯藏케 될 것인 마큼 大地主層도 間接的 不利하게 될 것으로 본다 (續)

肥料統制法案結果 製造業者一層擁護?

돌이혀 法的持權附與를 念慮

消費上大衆利益疑問

이번 議會에 提出된 肥料統制法案은 生產業者의 獨占的 橫暴로 因한 消費者 卽 農民의 不利를 막으라는 것이 그 主眼點이다 그럼으로 이 法案이 實現되면 農家는 從來와 가튼 不利의 立場에 立치 안케 되리라고 一部에서는 期待하는 터이다 그러나 이 統制法은 大生產業者의 組合을 製造種目別로 또는 地域的別로 購買組合을 新設케하라는 案이 그 立法의 精神인 獨占의 弊害를 除去하고 또는 消費者의 利益을 果然 擁護케될는지 이에 對하야 疑問을 안가질 수가 업는 바 그 理由는 다음과 갓다

◆肥料統制法案의 大體要綱은 肥料製造業者에 關한 것 그것의 取引業者 卽 營利商社乃至販賣組合에 關한 것과 그 輸出까지 亘한 廣範圍의 것이다 이로써 보면 그 製造業者는 從來와 가튼 肥料業者가 不能케되고 말하서 그 消費大衆에 有利한 結果가 될것 갓고 그러나 以上과 가티 肥料統制를 營益主眼으로 하는 命令 卽 法的統制에 依케되면 돌이혀 結局 大製造業者 또 大販賣業者의 利益을 法的으로 擁護케될 一定한 製造業者에게 製造販賣의 特權을 주는 結果가 되야 [illegible] 는지 모르는 念慮도 잇다 그래서 이 肥料統制法案의 運用如何가 가장 注目을 끄으는 터이라고 한다

"一理잇는 말" 運用如何가 問題

◆…農林局當局者談

朝鮮總督府 農林局肥料係尾崎技師는 肥料統制法案의 運用如何에 對하야 알에와 가티 말하엿다

肥料統制法案의 精神은 消費大衆인 農民의 不利를 막음에 主眼點에 잇는것이 事實이다 이 法案의 內容을 보아 或은 돌이혀 製造業者의 利益에 對한 擁護가 되지 안흘가 하는 見解도 一理가 잇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當局者가 立法의 精神에 依하야 그 運用을 잘하면 그런 弊害가 除去될것이라고 본다

"正租의 强制檢查" 絕對生產檢查로

◇…朝鮮穀聯答申事項內容

朝鮮穀物協會聯合會에서는 正租의 强制檢查實施에 關한 穀物檢查所의 諮問事項에 對하야 알에와 가튼 要項을 答申하엿다

一、正租의 强制檢查는 生產의 改良과 調製改善의 普及徹底를 期함을 目的으로 한 以上 絕對로 生產檢查에 準據할일

二、指定地外의 搬出檢查는 오즉 生產者에 對하야 生產改良觀念의 涵養을 不徹底케 할

三、搬出檢查만에 準據할때는 [illegible] 的商品價値를 局限하고 또는 指定地內와 指定地外의 價格不平等을 招致하야 取引을 不圓滑케 하고 또 商品의 自由性을 失할 念慮가 有함

四、搬出檢查는 生產地와 集散地의 原料需給狀態를 不圓滑케 할뿐만 아니라 旣設工場은 勿論 一般經濟的 動搖를 招致할 點이 有함

五、搬出檢查만 限定할 때는 그러지안혀도 跋扈하는 僻地不正仲買에 對하야 檢查手數의 煩雜 其他를 理由로 하는 低價買上 또는 斤量詐取等의 惡弊를 助長케 하는 때문에 農家의 被害를 一層大케함

六、以上의 理由로 보아 搬出檢查는 百害가 잇고 一利가 업슴으로 그 實施는 絕對反對함

七、만약 以上理由를 無視하고 이것을 行하라고 하면 前記의 諸弊害를 緩和할 便法으로 于先 『移出을 目的으로 하야 加工하라는 正租는 반드시 檢查合格品이 될일』로 限定하기를 要望함

八、正租의 檢查에 잇서서는 本會로서 由來 生產檢查를 要望한 것으로 그 實施를 不能케 하면 暫時 硏究期間을 設置하야 檢查의 實施期를 延期하기를 要望함

昨年產의 雜穀實收 二三日中發表

昨年產朝鮮內雜穀의 實收額에 對하야 總督府農林局에서 目下 各道報告를 가지고 計算中인데 이에 對한 正式發表는 二三日中 發表할 豫定이라고

日蘭會商의 決裂後影響

一般通商上惡化作用

【東京電話聯合】 神戶會商決裂에 對하야는 日本政府는 이번의 決裂로써 海運會商 그것의 終幕을 알고 보고 會商의 再開를 確信하며 또 事實에 잇서서 決裂後 兩國間에 行할 海運競爭의 結果는 當然히 再次의 會商이 必要하다고 豫想되며 딸어서 政府當局으로서는 그 確信으로써 關係政府와도 協力하야 會商을 再開케 하도록 民間當業者를 斡旋할 方針인데 一面 會商決裂後 兩國間에 展開될 海運競爭에 對하야는 蘭印政府가 日蘭通商條約上 너무 露骨的의 自國船舶保護主義에는 안나올 모양임으로 日本、蘭印兩國의 一般的通商關係에 밋칠 惡作用은 避치 안흘수 업고 딸어서 決裂後의 海運競爭과 蘭印政府의 態度를 警戒키로 되엿다고 한다

岐阜人絹界 休機를 斷行

最後의 手段으로서

【岐阜電話聯合】 人絹黃金時代에 잇서 飛躍에서 飛躍으로 發展되든 岐阜輸出人絹織物界는 今年에 入하면서 絲價의 崩落、織機增加等으로 因한 生產過剩의 重壓으로 採算이 惡化하야 同組合에서는 價格의 協定을 하고 그 對策을 講究하엿스나 何等奏效를 보지 못하엿슴으로 最後의 手段으로 相當한 期間의 休機를 斷行키로 決定한 모양인데 不遠 그 具體方法에 對하야 協議케 될 모양이라고 한다

銀塊連騰 市中價도 暴騰

銀貨의 落潮가 依然不變함을 따러 倫敦金塊가 別問題와 가티 四日 [illegible]

倫敦金塊空前高價 政府買上價引上?

一匁換算十五圓〇九錢으로

放置하면 密輸出旺盛

倫敦金塊市勢는 連日奔騰을 繼續하야 四日入電은 一온스七磅六志十片二分一로 前日보다 또 一志九片二分一의 暴騰을 演하야 一匁換算으로는 (朝銀二日建値一志二片) 十五圓〇九錢의 新高價를 出現하얏는바 이제 二月下旬以來 倫敦金塊의 昂騰步調를 보면 如左하다

入電日	一온스價	一匁換算圓
二月十六日	七、一、七片半	一四、八〇
十八日	七、一、八片半	一四、八一
十九日	七、二、七片	一四、八〇
二十日	七、二、十片	一四、七九
廿一日	七、二、九片半	一四、七九
廿二日	七、二、十一片	一四、八〇
廿三日	七、三、六片	一四、八六
廿五日	七、三、十一片	一四、九一
廿六日	七、三、九片半	一四、八九
廿七日	七、三、六片半	一四、八七
廿八日	七、三、十一片半	一四、九一
三月一日	七、四、一片	一四、九二
二日	七、五、九、一片	[illegible]
四日	七、六、十片半	一五、〇九

이가티 空前의 新高價를 보는 것은 그 主因이 磅의 下落에 잇는 것인데 四日京城市中金價는 買十一圓七十五錢 賣十一圓五十二錢으로 依然不變이나 이가티 자꾸 올르면 結果 日本內地의 金塊市勢도 自然高騰키에 至하겟고 政府의 金買上價도 當然引上이 豫想되기에 至하얏다 現在 政府買上價 一匁十一圓五十錢에 比하면 三圓五十八錢의 差가 잇슴으로 萬若 이대로 放置한다면 그러치안혀도 密輸出이 旺盛한 今日에 잇서서 一層 助長케 될것이고 產金業者로서는 새로히 考慮케될 것임으로 政府買上價도 問題化되리라 한다

京城殖銀 預金貸出

二月中比減少

【京城手形交換所調查】 京城組合銀行二月末의 預金貸出高는 預金一億五千四百四十六萬四千圓 貸出一億二千五百九十六萬圓으로 月中現在에 比하야 預金三十二萬二千圓、貸出二百二萬九千圓의 各減少이엇는데 이것은 通知預金二百三十五萬八千圓 特當五十三萬圓 證書貸四萬八千圓 割手三百五十萬一千圓減少의 結果이다 그러고 前年同期에 比하면 預金一千三百六十五萬五千圓 貸出一千四十七萬六千圓의 增加이며 有價證券高는 二億圓臺가 깨여진 以來 漸減하야 月中부터 四百九十萬九千圓減의 一億九千五百三萬五千圓으로 되엇다

對外爲替市況

【東京電話聯合】

▲東京爲替

對米	賣	二十七弗八分七
	買	二十八弗八分
對英	賣	一志二片三十二分一
	買	一志二片三十二分一

▲大阪爲替

對米	賣	二十八弗八分七
	買	二十八弗八分
對英	賣	一志二片三十二分一
	買	一志二片三十二分一

土改解散資金 不良水利補助로

朝鮮土地改良會社는 產米增殖計畫의 中止에 作하야 解散키로 決定하엿든 結果 總督府에서 大藏省當局과 折衝한 結果 不良水利組合補助金中에 包含하야 解散資金取入에 奏功하엿슴으로 右資金入手를 기다려 解散手續을 取키로 되엿다

商況 (四日)

株式 日產續騰 一息

前堂區區 休日後인 今前場은 倫敦金塊又復新高價를 보고 日產은 買氣復勢하야 高寄後 百五圓丁에까지 올느고 三圓八十錢大引되어 再昨前引보다 겨우 三十錢高에 갓치고 東新은 百五十圓以上에는 利喰物도 나와 잇고 天井觀의 賣物도 잇서 百五十圓丁과 百四十九圓九十錢間 한참 相支하다가 結局 休日前보다 一圓八十錢低인 百四十九圓四十錢大引、鐘新은 百三十二圓丁에 二圓二十錢高、大新九十四圓五十錢에 小抑大引、朝新二十九圓十錢으로 九圓丁大引、日窒六十八圓丁이엇다

◇大新 [illegible]

◇東新 [illegible]

◇日產 [illegible]

倫敦金塊高로 日產또新高價

倫敦金塊는 今日入電으로 暴騰인 七磅六志十片二分一로 一匁換算十五圓〇九錢이엇슴으로 休日前에 百四圓大關門을 回復한 日產이 小押은 가티 政府買上價引上豫想 [illegible] 場은 百五圓二十錢의 高價가 잇서 二月十八日의 低價九十圓十錢에서 十五圓十錢의 棒上에까지 뛰어올낫고 百三圓八十錢大引이엇는바 如斯히 空前의 新高價를 내이고 金塊高好感은 [illegible] 日產買氣를 助勢케함에 充分한 것으로 [illegible] 『日產』의 前途는 囑望되는 터로서 一押이 잇스면 더욱 조코 無押일지라도 總買付의 大勢이니 [illegible] 反動落이 업슬 形勢로서 日中提携問題와 아울러 全般的 市勢는 錦上添花의 百花燎亂이 期待되엇다

後場一息

後場은 東新百五十圓丁、日產百四圓二十錢、朝新二十九圓二十錢에 少高寄後 一息經持合이다가 大引

東新關門往來 好材累積市勢

아모리 大勢樂觀이라 할지라도 近二十圓의 棒上으로서 한숨에 百五十圓關門을 突破한 東新은 一應의 調節의 必要가 잇는바 休日을 지난 今前場은 倫敦金塊暴騰으로 日產關騰이나 東新만은 百五十圓中心의 保合이 잇서 穩便味를 보이엇다 百四十五、六錢에서 反動가튼 反落이 업섯든 만콤 百五十圓을 이미 突破한 直後인 지금에 잇서서 적어도 四、五圓가량의 下押이 잇서야 市勢律로도 當然한 일로 理想的이라 하겟스나 日中提携로 排日貨가 一掃되면 中國市場에의 進出에는 多少時間이 걸릴지라도 絕大好材料이며 諸物價는 漸騰일러이오 金融은 [illegible] 緩慢하며 金塊의 未曾有한 高價까지 겹처서 證券投資熱再發이 早晩必至인 此際이라 新春以來 無視되엿던 好材料를 吟味함과 同時에 好材累積市勢에 入한 點으로 보아 更히 今後 好步調를 期待할 수 잇는 同時 萎縮되엿던 買人氣蘇生이 積極的 飛付買까지 잇고야 말것으로 보이엇다.

日步問題決定

委員一名改選

二日午後에 열린 取引員協議會에서는 日步問題에 對하야는

一、日步의 率은 現行日本內地株三錢、地株一錢五厘로서 이는 그리 빈칸 것이 아니오 引下는 保留하고 日步의 最高를 一圓으로 限定할것

一、本日步에서 逆日步로 될때에만 限하야 一日間의 無日步로 할것

그리고 委員金潤氏後任은 東亞證券社長 [illegible] 氏로 決定하얏다 한다 日步問題에 對하야서는 以上決定을 取引所議員會에 附하야 通過되면 四月一日부터 實施하리라고

實物前場取引

賣買高二百五十枚

▲朝鮮製鍊 [illegible] ▲日本鑛業 [illegible] ▲日滿亞麻 [illegible] ▲新興人絹 [illegible] ▲東亞蠶產 [illegible] ▲南鮮合同 [illegible] ▲日本鑛業新 [illegible]

東京國債市況

【電通東京電話】 休日後인 市場 [illegible]

公定價도無視 凶作이라 無奈?

新甫五限도 過去三四限의 發會와 同樣으로 上韓發會한 後 又復一段高價를 示한다 此勝勢가 어느 程度까지 伸張될지는 몰으나 아즉까지는 出盛期의 氣分이 남아잇는 關係로 賣惜가 擡頭하게 될 모양이며 딸아서 農家의 賣惜方針이 갈사록 더욱 鞏固하여질 것임으로 自然賣米의 頑强을 免치 못할 것이며 遠貝米의 蒐集도 또한 困難할 것이다 그러한 모든 點으로 보아서 押目買의 連續的 方針으로 [illegible] 大勢를 變치 안는 것이 本年度의 唯一한 良策일 것 갓다 今朝阪地는 三十一圓七十錢 [illegible] 京은 三十一圓六十錢 [illegible] 十錢은 茨城縣 二等米를 標準한 最高公定價格인 三十一圓五十錢 [illegible]

市場六感

株

本格的 큰 市勢임을 首肯치 아니할 수 업는 터이나 前週末一氣로 뛰어 노앗스니 休日後인 今朝는 當然 五圓押을 두구나 바랏섯다 ▲그러나 東新百五十圓關門往來程度이며 倫敦金塊續騰으로 日產又復新高價로 速騰하야 百五圓丁의 高價를 보이고 나서 引際東新日產모다 一押 ▲東新百三十五、六圓에 서 판 사람들이 百四十五、六圓을 天井으로 보아 煎上코 나서 新規買한 사람이 적지 안엇는데 市勢는 그대로 외로 만하니 기막힐 노릇 ▲倫敦金塊高로 更生運動이 생긴

米

上朝로 發會한 五限은 又復二十餘丁을 昂騰、郵線上으론 그러저럭 五十餘丁을 昂騰 ▲過去三四限과 同樣

日產의 爆發이 야말로 日銀買入價引上豫想과 함께 去益勃勃之勢 ▲市勢律로보아 當然 떠러저야 할것이 오르는 것이 작스럽게 大食하는 것가 튼이 勢는 자미업다는 論이 不無 ▲그러나 日前下押有無를 不拘코 日中提携의 放送이 『뉴스』를 連發하는 限 큰 反落은 어려울 것 갓고 今後 市勢騰落의 [illegible] 도 이 日中問題如何에 專在 [illegible] 도막을 수 업스니 日產高의 絕大材料

으로 月初高를 示한 後 反落할지는 모르나 低落으로 [illegible] 라도 深人落은 難望 ▲今朝阪地市勢는 三十一圓六十錢이니 數字上으로는 最高公定價格을 突破 이엇다 ▲그러나 阪地市勢로는 三十二圓까지 昂騰하여야 算盤이 맛집으로 아즉도 四十丁의 餘裕가 잇다 ▲그러치만 買方으로서는 此邊에서 警戒할 必要가 잇지 안 흘가? ▲그러나 買方의 態度가 絕對頑强하야 어데까지 潛勢力을 가지고 잇슴을 보면 最高公定價格도 不拘하는 모양 ▲果然 在米品薄의 소리가 擡頭하는 때는 어떠한 威力으로도 高米價를 防止하지는 못할 것 ▲그럼으로 軟派도 絕對防戰을 못하는 光景이니 찰아리 押目買가 得意?

期米 高價一巡 小弛

前場小弛

再昨後場 阪堂三十一圓六十錢止와 共히 二十八圓九十錢에 揚하야 止한 當市場은 今朝에 入하야 阪地初付三十一圓六十六錢인 昨止同樣으로 揚하야 結局五十三圓九十錢에 止場을 告하야 六節九十四錢으로 八十一錢에 止場하엿다

後場細刻

後場은 二十八圓八十三錢에 一丁高로 始場後 三節八十四錢을 高價로 五節八十一錢에 弛하고 別擱가리 止場하다

市勢大體頑强

深人絕對無望

新甫五限도 過去三四限의 發會와 同樣으로 上韓發會한 後 又復一段高價를 示한다

朝取期米取組高

▲賣方 ▲買方

當 限 / 中 限 / 先 限 [illegible]

屈伏하는 것이 차라리 當然할지도 未知일것이다

各地正米

堂島前場伸惱 【大阪電話】 一昨後場株高에 依하야 好感高를 受하야 株式은 同東換하고 新規로 買煽하야 金과 神戶側地場買氣側의 買도 新高價買進이엇스나 山陽의 緊張와 朝鮮側賣로 伸惱이엇다

南滿續騰 產地의 買氣는 定期의 昂騰에 [illegible] 生가 때문인 마큼 定期와 中國側에서 賣出이 不一方日本內地로부터 引合가 [illegible] 進하야 移出側의 買進으로 市勢는 三十五錢 [illegible]

京城急騰 正租의 剩高로써 所持側의 態度가 頑强하야 依然賣物薄의 市場으로 市勢는 二十六錢急騰

仁川昂騰 定期의 意外伸惱를 보고도 產地態度頑强하야 東京方面의 入荷가 잇슴과 賣物의 品不足한 當業者의 買進으로 市勢는 二十錢昂騰을 告하야

釜山昂進 市場에는 川廻이오 內地의 買氣再燃으로 產地는 引締되엇스나 休日後인 今朝도 阪神門의 入荷로 移出側의 買와 相俟하야 買進化되고 市勢는 三十錢昂騰

大邱小高 休日後인 今朝는 定期의 小締로 賣門側의 賣도 로되지 안엇지만 精米側의 買進으로 十錢引締

三川奔騰 過去十七輛 貯藏米 解放되엇스나 大農側의 所持는 만큼 川廻치 안코 繼續하야 當市場은 今朝에 日本內地入荷 [illegible] 하야 地場買氣를 奔騰

木浦反撥 短期貯藏 解除도 一向 反映이 엇고 依然產地의 强硬 으로 賣惜하야 顯著한 取引이 업스나 日本內地側의 準備와 當用必需의 買進으로 二十錢反撥

今日財界 (四日)

◆米 (單位錢)

	今日止	比前日
仁川期米 先限	[illegible]	[illegible]
大阪期米 先限	[illegible]	[illegible]
三等米 一石	[illegible]	[illegible]
京城精白米 一石	[illegible]	[illegible]
正租 (仁川)改良	[illegible]	[illegible]
一斤價 在來	[illegible]	[illegible]

◆株 (單位圓)

	今日止	比前日
朝新	[illegible]	[illegible]
東新	[illegible]	[illegible]
日產	[illegible]	[illegible]

◆商品 (先限單位圓)

	今日止	比前日
大阪棉絲	[illegible]	[illegible]
大阪棉花	[illegible]	[illegible]
大阪人絹	[illegible]	[illegible]
大阪砂糖	[illegible]	[illegible]
生絲	[illegible]	[illegible]

◆金

市中金銀價	一匁買 十一圓七十五錢 / 賣 十一圓五十二錢

倫敦銀塊 [illegible]

金融 四日

●海外經濟 ●朝鮮銀行券 ●日本銀行券 ●京城手形交換高 ●東京金利 [illegible]

米穀 四日

●大阪金利 ●對外爲替 ●金買入價 ●京城正米 ●仁川正米 ●大阪正米標準價 ●京城雜穀 ●仁川大豆 [illegible]

商品 四日

●京城綿糸布市勢 ●京城絹布 ●日本麥粉市勢 ●시카고期麥 ●豆油沖價 ●豆粕沖價 ●滿洲商況 ●大連特產市勢 [illegible]

●大阪綿糸 ●大阪棉花 ●各地人絹 ●橫濱生糸 ●大阪砂糖 ●海外砂糖 [illegible]

期米 四日

●朝取期米 ●大阪期米 ●東京期米 ●日本各地期米 ●大阪市中在米高 ●大阪期米取組 ●朝鮮內各地期米 ●朝取實賣買高 [illegible]

株式 四日

●朝取短期 ●朝取短期實賣高 ●朝取代引日步 ●東京現株 ●東京短期 ●大阪短期 ●東京短期取引 ●大阪長期 [illegible]

金.銀.白金 京城德力 註文地方代金引換販賣買入 料送先金 電話本局3939 振替京城34 京城府明治町

金·銀·白金 賣買 大陸商會 京城府茶屋町壹〇番地(小廣橋畔) 電話光化門五二八番 振替京城壹五壹四番 註文地方代金引換販賣買入 料送先金

朝取取引員 期 株 王 米 式 金仁錫商店 [illegible]